

雲門

불가 2555년
가을호
동권 제118호
雲門僧伽大學





불가 2555년 가을호 통권 제118호

雲門

목 차

호거산 운문사	2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 편집부
죽림헌	3	어진 벗은 초승달과 같다 명성스님
교수논단	4	『능엄경』에 나타난 마음의 논증 분석 III 명범스님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6	제12차 샤카디타를 다녀와서 진관스님
차례법문	12	죽음 준비하기 현우스님
학인논단	14	信解行證에 관한 고찰 선유스님
想 하나	16	나한님들도 가을을 탈까요? 지오스님
특별기고	20	변화하는 시대의 상구보리 하화중생 정목스님
이와 같이 들었다	22	보계존자 나옹스님 발원문 편집부
이 한 권의 책	25	이덕무와 그의 벗들 이야기 성민스님
선사이야기	26	가마솥 행자의 인욕바라밀 보각스님
사찰탐방	28	달과 덕주와 마에불 덕해스님
특별인터뷰	30	불교호스피스 자비行者를 찾아서 자경스님
운문, 운문인	32	處處佛像 事事佛供 편집부
끝없는 여정	36	연(蓮)과 물망초 법진스님
나를 찾아가는 길	38	선정 편집부
想 둘	42	은행잎 내리던 날 승이스님
인도기행	43	상처 위에 연꽃 피우기 덕안스님
답소	44	여성의 힘을 모아 새로운 도약으로 조은수
운문칼럼	48	사람다움에 대하여 현서스님
풍경소리 하나	50	인어공주
풍경소리 둘	51	雲門의 가을 명현스님
수행의 두레박 하나	52	태평가 성현스님
수행의 두레박 둘	53	순수한 밥 도윤스님
운문논평	54	향기로운 삶 - 회향 편집부
운문소식	56	
모집공고	58	
	59	



다리고 머물고 앉고
놓는 동안 한순간도
헛되이 버리지 말라
용맹이 용맹을 더하기
우리 부처님 살이 하라
— 太古王師 —
栢松金熙洙

어진 빛은 초승달과 같다

명 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요즘같은 가을, 하늘을 쳐다봅니다. 여름철 내 구름을 머리에 이고 지내서인지, 청명한 새벽하늘을 보는 것이 신비롭고 황홀합니다. 초승달도 있고, 반짝이는 별도 있고, 아련한 별, 손에 잡힐 듯한 별, 산등성에 걸린 별 등이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빛납니다. 쳐다볼수록 경이롭습니다. 이때 문득 아함경에 “착한 빛은 초승달과 같다.”라는 경구가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승가라’라는 젊은 바라문이 부처님께 문안드리고 여쭙었다.

“고타마시여, 착하지 않은 빛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비유하면 달과 같나니라.”

“착한 빛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또한 달과 같나니라.”

“어찌하여 착하지 않은 사람과 착한 사람을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착하지 않은 빛은 보름이 지난 달과 같아서 점차 어둠을 더해가는 사람이고, 착한 빛은 초승달과 같아 매일 밝음을 더해 가는 사람이나.”라고 말씀하셨다.

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저 새벽하늘에 초승달과 같은 빛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복잡한 현대사회가 주는 온갖 종류의 유혹과 세상인연에 매이고, 탐진치 삼독심에 빠져 세월을 보내다 보면 보름달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태도를 부처님께서 네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나가는 사람, 둘째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가는 사람, 셋째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나가는 사람, 넷째는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첫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현재의 인생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워 악심을 품고 더욱 악행을 행함으로써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은 비록 신분이 천하거나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등 모든 조건이 불행하더라도 능히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으로서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곧 좋은 씨앗을 심어 미래에 좋은 과보를 받을 사람입니다. 셋째 부류의 사람은 지위가 높고, 부잣집에서 태어나 경제적, 사회적 여유와 신체가 건강하여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고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넷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부유하고, 배움도 많고, 교양 있고, 신체도 건강해서 남부러울 것이 없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배풀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네 부류 중 어디엔가는 속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부처님의 위와 같은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 자신을 통찰하고 행동한다면 초승달과 같은 어진 빛, 밝음으로 나아가는 나, 그리고 우리가 될 것입니다. ☸

『능엄경』에 나타난 마음의 논증 분석 Ⅲ

명 법 / 운문승가대학 강사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능엄경』의 특징
- III. 마음의 논증
 - 1) 『능엄경』의 서술 방식
 - 2) 七處徵心章의 분석
 1. 첫 번째 주장
- 마음이 몸 안에 있다(在內).
 2. 두 번째 주장
- 마음이 몸 밖에 있다(在外).
 3. 세 번째 주장
- 마음이 根 속에 있다.
 4. 네 번째 주장
- 밝음을 볼 때는 밖을 보는 것이고 어둠을 볼 때는 안을 보는 것이다.
 5. 다섯 번째 주장
- 합하는 데 따라 마음이 있다.
 6. 여섯 번째 주장
- 마음이 중간에 있다.
 7. 일곱 번째 주장
- 집착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다.
- IV. 마음에 대한 서양철학의 몇가지 이론
- V. 맺음말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항상 부처님께서 사 부대중에게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이 일어나며 법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가지 마음이 일어난다고 계시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사유의체가 실제로 제 마음의 성품이므로 합하는 곳에 따라 마음이 수반하여 존재하므로 또 안, 밖, 중간 세 곳이 아닙니다.”

阿難言호대, “我常聞佛이 開示四衆하사대 由心生故로 種種法生하며 由法生故로 種種心生이라하시니 我今思惟호대 卽思惟體가 實我心性이라 隨所合處하야 心則隨有하나니 亦非內外中間三處나이다.”

합하는 데 따라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법을 반영할 때를 따라서 그곳이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주장이다. “천 리 길을 생각하면 문득 천 리에 이르고 만 리 길을 생각하면 문득 만 리에 이른다”는 견해와 같이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5.1. 반론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지금 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며 합하는 곳을 따라 마음이 수반하여 존재한다고 한다면 佛告阿難하사대, “汝今說言호대 由法生故로 種種心生하야 隨所合處하야 心隨有者인댄

5.1.1. 마음의체가 없는 경우

이 마음은체가 없으므로 합하는 바가 없을 것이다. 만약체가 없어도 합할 수 있다면 19계가 7진 때문에 합해야 할 것이니 이 뜻은 완전히 틀렸다. 是心無體하야 則無所合이오 若無有體호대 而能合者인댄 則十九界가 因七塵合이니 是義不然하니라.

합한 곳을 따라 마음이 있다면 마음은체가 없기 때문

에 합할 것도 없게 된다. 만약체가 없어도 합할 수 있다고 한다면체가 없는 19계가체가 없는 7진 때문에 합해질 것이므로 이치에 맞지 않다.

5.1.2. 마음의체가 있는 경우 - 나온 곳을 따라서 볼 때

만약체가 있다면 네가 손으로 너의 몸을 찌를 때 너의 알아차리는 마음이 다시 안에서 나오는가, 밖에서 들어가는가? 若有體者인댄 如汝以手로 自捏其體에 汝所知心이 爲復內出가 爲從外入가.

마음이 합한 곳을 따라 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몸을 때리면 지각하는체가 분명하게 때린 곳에 나타나야 한다. 그렇다면 지각하는체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물을 수 있다. 만약 때린 것 때문에 처음으로 마음이 생긴 것이라면 ‘따라서 있다’는 주장은 성립된다. 만약 따라 나온 곳이 없다면 어떻게 그곳을 따라서 합할 수 있겠는가?

5.1.2.1. 마음이 안에서 나온 경우

만약 다시 안에서 나왔다면 오히려 몸 안을 보아야 할 것이다. 若復內出인댄 還見身中이오.

법이 생길 때 마음이 생하고 이때 마음이체가 있다면 마음은 나온 곳이 있어야 한다. 만약 나온 곳이 안이라면 마음은 안에 있다는 것과 같으니 반드시 몸 안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첫 번째 주장에서 논파된 것이므로 이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5.1.2.2. 마음이 밖에서 들어온 경우

만약 밖에서 들어왔다면 먼저 얼굴을 보아야 할 것이다. 若從外來인댄 先看見面이니라.”

마음이 밖에서 들어왔다면 네 번째 주장과 같이 먼저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얼굴

을 볼 수 없으므로 이 가정도 성립하지 않는다.

5.1.2.3. 아난의 반론

아난이 말하되, “보는 것은 눈이고 마음이 지각하는 것이지 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阿難言호대, “見은 是其眼이오 心知非眼이니 爲見호미 非義나이다.”

이 부분은 눈과 마음을 동시에 거론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아난의 주장은 보는 것은 눈이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본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아난은 마음이 아는 것과 눈이 보는 것을 다르다고 간주했으며 부처님이 앞에서 눈도 지각을 한다는 입장에서 반박한 것을 재 반박하고 있다.

5.1.2.4. 아난의 반론에 대한 반례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만약 눈이 볼 수 있다면 네가 방에서 문을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미 죽은 자도 아직 눈이 있으므로 모두 사물을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사물을 본다면 어떻게 죽었다고 하겠는가? 佛言하사대, “若眼能見인댄 汝在室中하야 門能見不야. 則諸已死도 尚有眼存할새 應皆見物이며 若見物者인댄 云何名死리오.

비유 : 아난이 방 안에 있어야 문을 통해 바깥을 볼 수 있다. 만약 문만 있고 사람이 그 안에 없다면 문이 열려 있어도 보는 일은 없다. 이처럼 우리가 눈이 보는 것과 상통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눈을 갖춘 마음이 있어야만 볼 수 있다. 부처님은 죽은 사람을 반례로 들어 아난의 주장을 반박했다. 눈이 보는 것이라면 죽은 자는 눈이 있지만 볼 수 없다. 만약 눈이 볼 수 있다면 죽은 자도 볼 수 있어야 하고 만약 그렇다면 죽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눈만으로 볼 수 없고 지각하는 것은 모두 마음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이 철저히심 대목

5. 다섯 번째 주장 - 합하는 데 따라 마음이 있다.

1) 이 대목의 논의는 마음과 신체의 관계를 ‘수반’ 관계로 본 강제권의 수반론과 유사하다. X가 Y에 수반된다는 의미는 Y가 고정되면 X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마음은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이 만나는 곳을 따라서 현상한다는 점에서 ‘수반한다’고 번역했다.

은 마음을 문제 삼는 것이지 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 없으므로 '따라서 합한다'는 아난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5.1.3. 마음의 체가 있는 경우 - 체의 수와 양태에 따른 분류

아난아, 또 너의 알아차리는 마음이 만약 반드시 체가 있다면 다시 체가 하나인가 체가 다수인가? 다시 지금 너의 몸에 전체인가 부분인가?
 阿難아 又汝覺了能知之心이 若必有體인댄 爲復一體아 爲有多體아 今在汝身하야 爲復徧體아 爲不徧體아.

5.1.3.1. 마음이 하나일 경우(단일성)

만약 일체라면 네가 손으로 한 곳을 찌르면 사지가 알아야 하며, 만약 모두 안다면 찌르는 곳은 없을 것이다. 만약 찌르는 곳이 있다면 너의 一體는 본래 성립되지 못할 것이다.

若一體者인댄 卽汝以手로 捏一支時에 四支應覺할새 若 成覺者인댄 捏이 應無在하리며 若捏有所인댄 則汝一體가 自不能成하리라.

만약 일체라면 몸의 한 곳을 찌를 경우 온몸이 아파야 한다. 만약 온몸이 아프다면 특정한 찌른 곳이 없다. 반대로 찌른 것이 특정한 곳이라면 일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5.1.3.2. 마음이 여럿일 경우(다수성)

만약 체가 여럿이라면 여러 사람이 될 것이므로 어떤 체를 너라고 하겠는가?
 若多體者인댄 則成多人이어나니 何體爲汝리오.

마음이 여럿이라면 하나일 경우 문제된, 특정한 곳만 통증이 있고 다른 곳은 통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마음이 다수가 되므로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마음이 존재하게 된다.

한 사람은 오직 하나의 마음만 가지기 때문에 이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5.1.3.3. 마음이 변체일 경우(전체)

만약 전체라면 앞에서 찌른 바와 같을 것이다.
 若遍體者인댄 同前所捏하리라.

이것은 일체의 경우와 같다. 마음이 온몸에 가득해야 하므로 마음은 단일한 것이다.

5.1.3.4. 마음이 변체가 아닐 경우(부분)

만약 전체가 아니라면 네가 머리를 만지면서 발도 만지면서 머리는 지각하지만 발은 지각이 없어야 할 것인데 너는 지금 그렇지 않다.

若不遍者인댄 當汝觸頭亦觸其足이면 頭有所覺足應無知어늘 今汝不然하니

마음이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라면, 만약 머리를 만지면서 동시에 발을 만진다면 한 부분은 지각이 있고 다른 부분은 지각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두 가지 지각을 동시에 갖게 되기 때문에 불변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5.2. 결론

그러므로 합하는 곳을 따라 마음이 수반하여 존재한다고 말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是故로 應知하라 隨所合處하야 心則隨有라함이 無有是處니라.”

6. 여섯 번째 주장 - 마음이 중간에 있다.

아난이 부처님께 사죄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또 부처님이 문수사리 등 여러 법왕자와 實相을 말씀했을 때 세존께서 마음은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처럼 안은 본 것이 없고 밖은

서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안은 앎이 없기 때문에 ‘안에 있다’는 주장이 성립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서로 알기 때문에 ‘밖에 있다’는 주장도 옳지 않습니다. 지금 서로 알지만 다시 안은 몸이 없으므로 중간에 있어야만 합니다.”
 阿難이 白佛言호대, “世尊하 我亦聞佛이 與文殊等 諸法王子와 談實相時에 世尊亦言하사대 心不在內하며 亦不在外라하시니 如我思惟에 內無所見하고 外不相知하리니 內無知故로 在內不成하고 身心相知할새 在外非義니 今相知故로 復內無見할새 當在中間이니이다.”

6.1. 논증 - 중간의 정확한 정의를 요함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중간이라고 말한다면 중간은 반드시 불분명하지 않고 있는 곳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 네가 중간의 추정해 보아라. 중간은 어디에 있는가, 공간에 있는가, 몸에 있는가?
 佛言하사대, “汝言中間이라하니니 中必不迷하야 非無所在니 今汝推中하라. 中何爲在오, 爲復在處아, 爲當在身가.

6.1.1. 중간이 몸에 있을 경우

만약 몸에 있다면 걸은 중간이 아니므로 중간에 있다는 것은 안과 같다.
 若在身者인댄 在邊非中이오 在中同內니라.

몸에 있다면 걸에 있으면 중간이 아니고 안에 있다면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첫 번째 주장과 같이 안에 있는 것이 된다.

6.1.2. 중간이 공간에 있다고 할 경우

만약 공간에 있다면 표시할 수 있는가, 없는가.
 若在處者인댄 爲有所表아, 爲無所表아.

만약 공간에 있다면 ‘그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6.1.2.1. 위치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표시할 수 없다면 없는 것과 같고
 無表인댄 同無하고

6.1.2.2.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시되더라도 일정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표시로 중간의 표현할 때 동쪽에서 보면 서쪽이고, 남쪽에서 보면 북쪽이 되어서 표시의 체가 혼돈되니 마음이 어지러울 것이다.”
 表則無定하니 何以故오 如人以表로 表爲中時에 東看則西요 南觀成北하야 表體既混하니 心應雜亂이니라.”

위치 표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중간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치는 그것을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동쪽에서 보면 서쪽이 되고 남쪽에서 보면 북쪽이 된다. 이렇게 위치를 표하는 것이 혼란되면 마음도 혼란해질 것이다.

이 논증은 위치를 절대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상대성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어떤 위치도 절대적으로 중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중간은 규정될 수 없으며 규정될 수 없는 것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6.2. 아난의 부정

아난이 말했다. “제가 말씀드린 중간이란 이 두 종류가 아닙니다. 세존께서 눈과 색이 연이 되어 안식을 발생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눈은 분별이 있고 색진은 지각이 없는데, 식이 그 중간에서 발생하므로 곧 마음이 있게 됩니다.”
 阿難言호대, “我所說中은 非此二種이니 如世尊言하야 眼色爲緣하야 生於眼識이라하시니 眼有分別하고 色塵은 無知거든 識生其中하나니 則爲心在이니이다.”

아난이 말하고자 한 중간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눈(근)과 색진(경)이 반연하여 안식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아난은 허망한 18계를 실제로 생각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오해했다. 아난은 눈이 지각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눈이 몸에 있으면서 지각이 있다면 그것은 몸속에 있는 것이다. 또 색진은 지각이 없으므로 외경에 속한다. 눈과 색진이 안과 밖이 되고 이 둘이 상대가 되어 식이 그 중간에서 작용하고 분별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식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여 근과 진의 중간이라고 말하였다.

6.3. 부처님의 논박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이 만약 근과 진 중간에 있다면 이 심체가 양자를 겸하는가, 아난가? 佛言하사대, “汝心이 若在根塵之中인댄 此之心體가 爲復兼二아 爲不兼二아.

6.3.1. 겸하고 있는 경우

만약 양자를 겸한다면 사물과 체가 뒤섞일 것이다. 사물은 체의 지각이 아니므로 대립하여 양립할 것인데 어떻게 중간이 되겠는가? 若兼二者인댄 物體難亂하리니 物非體知일새 成敵하야 兩立하리어니 云何爲中이리오.

만약 양자를 겸한다면 사물과 체가 잡란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물은 지각이 없고 체는 지각이 있기 때문이다. 양자는 서로 대립되므로 중간이 될 수 없다. 가정에 모순되므로 이 논증은 성립하지 않는다. 『계환해』는 사물을 根塵으로, 체는 마음으로 해석하는데, 그러면 대립되는 것이 마음과 根塵이므로 대립되는 것을 중간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지각이 없는 根塵으로부터 지각이 있는 마음이 나온다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정맥소』는 사물을 塵으로 체를 根으로 본다. 塵인 사물은 지각이 없고 根인 체는 지각이 있으므로 둘이 모순되고 대립하는데 어떻게 중간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중간이 되려면 진과 근이 연속체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양자가 연속체가 된다면 중간은

반은 지각이 있고 반은 지각이 없어야 하므로 다시 대립하여 양변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간은 성립할 수 없다.

6.3.2. 겸하지 않는 경우

양자를 겸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지각도 아니고 지각이 아닌 것도 아니므로 체성이 없을 것이다. 중간이 어떻게 상이 되겠는가? 兼二하야 不成인댄 非知不知라 卽無體性이어니 中何爲相이리오.

양자를 겸하지 않는다면 지각하는 것도 지각하지 않는 것도 없게 된다. 그렇다면 체성이 없으니 어떻게 중간이 어떤 모양을 띌 수 있겠는가? 양자를 겸하지 않는다는 것은 心體와 根塵의 두 가지 법이 모두 연속되어 있지 않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심체는 근의 지각이 있지도 않고 진의 지각이 없지도 않으므로 체성이 없게 되며 따라서 중간은 성립되지 않는다.

6.4. 결론

그러므로 중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是故應知하라 當在中間이라함이 無有是處니라.”

7. 일곱 번째 주장-집착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다.

아난이 부처님께 사죄했다. “새존이시여, 제가 옛날에 부처님에서 대목련, 수보리, 부루나, 사리불 네 명의 상수제자와 함께 법륜을 굴리시면서 항상 ‘알아차리고 분별하는 심성이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으며 중간에도 있지 않으며 모두 있는 곳이 없으므로, 일체를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마음이라고 부른다’ 하셨으니 제가 무착을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阿難이 白佛言호대, “世尊하! 我昔에 見佛이 與大目連,

須菩提, 富樓那, 舍利弗四大弟子로 共轉法輪하사 常言하사대 覺知分別心性이 既不在內하야 亦不在外하야 不在中間이라 俱無所在하야 一切無著을 名之爲心이라하시니 則我無著으로 名爲心不잇가?”

이 주장은 부처님의 설법을 아난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만든 것이다. 부처님의 설법의 내용은 마음이 세 가지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 때 마음이란 분별하고 覺了하는 망심을 말한다. 이것은 망심은 체가 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아난은 이것을 오해하여 무착이 마음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마음의 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체는 있지만 다만 집착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망심이 위치가 없어서 집착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망심이 체가 없음을 깨닫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의 여섯 가지 ‘체가 있다’는 논거를 부정한 것은 처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지금 아난이 주장하는 것은 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정하는 이유는 원래 처가 없음을 논증한 것이 체가 없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아난은 무착을 증명하여 마음의 체를 삼고자 하였으며 아직 無體임을 깨닫지 못하고 체가 있다는 데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다시 부정한 것이다.

7.1. 반론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알아차리고 분별하는 마음의 성품이 있는 곳이 없다고 말하는구나. 세간 허공과 해엄치고 기고 날아다니는 모든 물상을 일체라고 하는데 네가 무착이라고 한 것은 존재하는가? 佛告阿難하사대, “汝言覺知分別心性이 俱無在者라하시니 世間虛空과 水陸飛行하는 諸所物象을 名爲一切니 汝不著者는 爲在아 爲無아?

집착하지 않는다고 할 때 집착하지 않는 대상은 존재하는가, 아난가라는 질문이다.

7.1.1.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없다면 거북의 털과 토끼의 뿔과 같으니 어떻게 무착이겠는가? 無則同於龜毛兔角이어니 云何不著이리오?

만약 없다면 거북의 털이나 토끼의 뿔처럼 비존재이다.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집착할 곳이 없으며 따라서 無着이란 의미는 성립하지 않는다.

7.1.2. 존재하는 경우

무착이 있다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상이 없으면 [무착이] 없고 없지 않으면 상이 있다. 상이 있으면 [무착이] 있으니 어떻게 무착이겠는가? 有不著者인댄 不可名無니라. 無相則無요 非無則相이라 相有則在어니 云何無著이리오?

만약 일체의 대상이 존재한다면 집착이 있게 되므로 없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이 없다면 대상도 없으며 상이 없지 않다면 상이 있는 것이다. 상이 있다면 곧 존재하며 집착하게 되므로 무착이라고 말할 수 없다.

7.2. 결론

그러므로 일체에 집착이 없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是故應知하라 一切無著을 名覺知心은 無有是處니라.”

이렇게 7가지로 마음의 소재를 부정했는데 사실상 아난이 주장한 마음의 처소는 4가지뿐이다. ①몸의 안 ②몸의 바깥 ③근 속과 중간에 일정한 처소가 없다는 것이며 ④마지막은 처소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을 논파하였다. ㉔

제12차 사카디타를 다녀와서

진 관 / 운문사 한문불전 대학원



사카디타(sakyadhita)는 <석가의 딸들>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1987년 2월 인도 보드가야에서 결성된 세계 최대의 불교여성단체로써 세계 여성불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해왔다.

본 협회는 제1차 세계여성불자대회 결의에 따라 설립되어 전 세계 45개 국가에 1,900명의 회원과 후원자를 두고 있다. 국제대회는 격년으로 열리는데, 각기 다른 문화, 다른 전통에서 온 재가 여성불자 및 출가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여성불자의 수

행환경,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는 모임이다.

이번 제12차 사카디타 세계여성불자대회는 지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해탈로 이끌다'란 주제로 논문 60여 편이 발표되었고, 32여 개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행사를 치른 방콕의 사치라 담마사탄(Sathira Dhammasathan)은 산사이 매치(비구니 계단이 없어서 정식으로 계를 받지 못한 출가 여성을 가리킴, 태국 여성수행자) 사원으로 수많은 나무와 꽃들로 둘러싸여 아름다웠다. 특히 인공석의 돌의자와 자연을 이용한 여러 소재의 물건들은 열악한 환경과 매우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최고조였던 불쾌지수에 웃음을 주었다.

운문사는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학장스님을 비롯해 원로 강사스님, 명법 강사스님, 올원생 스님 2명, 한문불전 대학원스님 6명이 참가하였다. 그 외 중앙승가대학 스님 6명, 동학사 스님 1명, 불교여성연구소 11명(조은수 소장, 한주영 사무처장, 하현정 연구교육팀장, GEP 수료생 8명), (사)지혜로운 여성 옥복원 이사(종교와 젠더연구소 소장),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장 등 40여 명의 출가자와 재가자가 참여했다.

동학사 동건스님은 「살아 있는 동학사」라는 주제로 동학사의 생활, 학풍, 교육과정 등을 소개하면서, 2004년 대회 이후 고쳐된 한국 비구니 승가의 교육체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드높였다. 조은수 교수님의 「여성의 리더십과 불교의 무아설」은 원효스님의 『보살계본지법요기』를 인용하여 아견이란 '방편'으로서 나타나는 개인적 성취동기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아견으로 시작해도 자비행과 이타행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아견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Georgia대학의 이향순 교수님은 「한국감로맹화 속의 식차마나」를 발표하면서 여러 맹화 속에 나타난 비구니, 사미니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김종인 박사는 유일한 남성 발표자로, 「재가 여성불자: 한국불교계의 절대다수, 가장 소외된 존재」란 주제를 발표했으나 최근의 상황이 포함되지 않아 한국 참가자들이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외 새로운 주제로 생태학 관련에서는 동물 학대의 실태를 지적해 채식을 강조하였고, 방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 힌두여성의 출가수행 전통과 이슬람의 회교도에 대한 종교적 대화, 테레사 수녀와 이상적 보살상, 불교사찰의 장애인 현황 등 다양한 발표 내용이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여러 스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가사와 장삼의 색깔 등은 화려하였고, 우리네의 부동적인 모습과는 다른 자유분방한 그네들의 모습은 대회에 처음 참가한 나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특히 영어 위주로 이루어진 주제 발표는 언어장벽을 실감케 했다. 그러나 영어를 모르는 이들도 많았다. 동시통역에 애써 주신 스님과 재가자 모든 분께 정말 감사드릴 뿐이다.

6월 11일 태국공항에 도착 당시, 대회 자원봉사자의 환영과 함께 호텔까지 에스코트를 받게 되었다. 하루 먼저 도착한 관계로 비구니의 위상을 국내외에 드높인 공로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학장스님께 수여한 '마하출라 롱콘(Mahachulalongkorn)국립대'를 방문하였다. 비구들을 위한 완벽한 교육 환경과 시설들은 놀라웠고, 계속 불사 중인 학교 안의 모습을 보며, 비구니를 인정하지도 않고 교육하지도 않는 태국의 실정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태국에서 여자들은 '치(chi)' 혹은 '매치(mae chi)'라고 불리는 여승으로만 절에서 생활할 수 있다. 또한 매치는 행정적으로도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다. 여자들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비구니로 계를 받은 여자는 태국에 30명 정도이다. (이에 비해 스리랑카에는 약 500명의 비구니가 있으며, 인도에는 50명의 상좌부 비구니를 포함해 1천 명 정도라고 한다.) 1928년에 제정된 태국 승가법에서 "비구는 비구니에게 계를 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 유효하며, 이 조항에 따라 비구니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승가법에서건 계율에 대한 불교 경전의 어떠한 곳에서건 여자의 승려 활동에 대한 제한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태국의 여러 불교 전문가들은 여자들도 정식 승려로 수계 받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여성불자들이 각자 여러 분야에서 많은 활동과 연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열악한 비구니 승가는 정말 안타까움을 더할 뿐이다. 이제는 더 많은 교류와 토론 등을 통해 올바른 수계와 비구니 승가의 복원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한국 비구니 교육기관이 도움이 된다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한국 비구니로서의 당당한 모습으로 수행과 정진에 더 힘써야 할 것이며, 한국여성불자들 또한 확고한 불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해 본다. 또한 13차 사카디타는 더욱더 발전된 세계여성불자대회가 되기를 발원해 본다.

죽음 준비하기

현 우 / 사집과

안녕하십니까, 사집반 현우입니다.

생사대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교에서는 생사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사대를 해결한다는 것은, 죽음도 삶도 없는 자유로운 경지를 말합니다. 그럴 때는 “나, 간다” 라며 자유자재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생사보다는 식사가 더 대사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행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만, 그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예전엔 없던 죽음이 많아졌습니다. 자동차 사고, 의료 사고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기계 장치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하거나, 암이나 에이즈 등 치명적인 병에 걸려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행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병으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회복될 가망성도 없이 기계장치에 의지해서 단지 숨만 쉬고 있는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죽는 것을 바라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퇴원도 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살인 방조죄 등으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생명은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사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일단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기계 장치에 의지해서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2009년에 <김 할머니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할머니를 가족이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 재판에서 승소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난 기계에 의지해서 살아 있기 싫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평상시의 언행

으로 그러실 거라고 추정해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 드린 것입니다.

살아 있는 생명은 누구나 계속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불살생계가 가장 첫 번째 계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그냥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다고 해서 살아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존엄사를 주장하는 사람은 살 권리만큼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사회에서 존엄사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본인의 의사를 미리 확실히 밝혀놓으면 김 할머니의 경우처럼, 원하지 않는 형태의 삶을 중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전 유서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미리 유서를 써두는 겁니다. 재산을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가 아니라, 원치 않는 형태의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미리 선언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언서”라고도 합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이 임박했거나, 오랫동안 혼수상태에 빠졌을 경우, 생명을 인위적으로 유지시키는 연명조치를 중단해달라고 명시하고, 본인과 가족이 서명하고 공증인의 서명도 받아놓습니다. 그럼 이 유서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불교적 관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굳이 교리적으로 찰나 생, 찰나 멸이나 생사윤회를 들추지 않아도 우리 삶의 순간순간은 죽어가는 순간순간이기도 합니다. 단지 그것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누구나 죽음이 임박하기 전까지는 죽음을 나의 일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치 않아도 늙고 원치 않아도 죽습니다. 먼저 왔다고 먼저 가지도 않고, 나중에 왔다고 나중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 평생 살아온 삶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우리 수행자에겐 수행의 결과가 오롯이 드러나겠지요. 마지막으로 증일아함경의 한 구절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이여, 그대들도 이렇게 드나드는 호흡지 간에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수행해야 생로병사와 근심, 걱정, 고통, 번민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이다.”

대중스님 여러분!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정진 여일 하십시오. ॥

信解行證에 관한 고찰

- 華嚴經을 중심으로 -

선 유 / 대교과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信解行證과 華嚴經

1. 信-믿음

- 1) 信의 불교적 정의
- 2) 믿음의 대상
- 3) 화엄경 속의 信의 요소

2. 解-이해

- 1) 解의 불교적 정의
- 2) 화엄경 속 解의 요소

3. 行-실천

- 1) 行의 불교적 정의
- 2) 화엄경 속 行의 요소

4. 證-깨달음

- 1) 證의 불교적 정의
- 2) 화엄경 속 證의 요소

III. 맺음말

I. 들어가는 말

불교의 모든 經典 속에는 공통적으로 信解行證이 담겨 있다. 경전마다 각각에 대해 비중을 두고 설

명하는 바가 다르긴 하지만, 초기경전부터 대승경전 그리고 논서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네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만큼 信解行證은 붓다에서 역대 조사들까지 수많은 고증을 거친 불교의 완성된 수학 차례(修學次第)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출가자와 재가자에 관계없이 佛法에 입문하는 누구라도 이 과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고에서는 수행자의 입장에서 信, 해, 행, 증을 정의하고 『화엄경(華嚴經)』을 통해 각각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과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의 광대한 공덕에 대해 설한 경전이다. 전체적인 주제는 한마디로 '여래의 해탈세계와 보살의 실천'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으로 표현되는데 이 뜻은 '비할 데 없이 가장 높고 올바르게 보편적인 깨달음'이란 뜻이다. 여래가 깨달으신 광대한 세계는 범부 중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세계이므로 화엄경에서는 이 해탈의 세계를 '不可思議解脫境界'라고 표현한다. 이 불가사의한 해탈의 세계에 대한 설명이 화엄경의 첫 번째 주제이다. 다음은 이처럼 불가사의한 해탈의 세계를 구현해 가려는 보살의 광대한 실천(普賢行願)이 두 번째 주제로, 여래가 깨달아 들어간 불가사의한 해탈세계를 설명하고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보여준 뒤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이 해탈세계로 인도하려는 보살의 실천이 전체적인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가 각 품마다 信解行證이라는 과정을 통해 정리 된다.¹⁾

1) 많은 주석가들이 화엄경을 信解行證이라는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저마다 내용상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다. 여기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구분을 참고했다.

〈 信解行證으로 나눈 華嚴經의 구성 〉

處	會	品名	區分	要約
보리도량	제1회	1.세주묘엄품	신(信): 舉果勸樂生信分	비로자나불의 원만한 과보를 말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심과 신심을 일으키게 하는 과정.
		2.여래현상품		
		3.보현삼매품		
		4.세계성취품		
		5.화장세계품		
		6.비로자나품		
보광명전	제2회	7.여래명호품	해(解): 修因契果生解分	결과를 보고 환희심과 신심이 나면, 그 결과의 원인을 수행하고 결과를 얻으려는 수승한 理解가 나게 되는 부분. 10신, 10주, 10행, 10회향, 10지의 50단계의 인행(因行)을 닦아서 부처님의 과보를 이루는 일을 설함. 원인과 결과가 서로 계속되며 차례차례 위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 것으로, 인을 닦아서 과보를 받는 이치에 의지하여 지혜를 내게하는 과정.
		8.사성제품		
		9.광명각품		
		10.보살문명품		
		11.정행품		
		12.현수품		
도리천궁	제3회	13.승수미정상품		
		14.수미정상계찬품		
		15.십주품		
		16.법행품		
		17.초발심공덕품		
		18.명법품		
야마천궁	제4회	19.승야마천궁품		
		20.아마천궁계찬품		
		21.십행품		
		22.십무진장품		
도솔천궁	제5회	23.승도솔천궁품		
		24.도솔천궁계찬품		
		25.십회향품		
타화자재천궁	제6회	26.십지품		
보광명전	제7회	27.십정품		
		28.십통품		
		29.십인품		
		30.아승지품		
		31.여래수랑품		
		32.보살주처품		
		33.불부사의법품		
		34.여래십신상해품		
		35.여래수호광명공덕품		
		36.보현행품		
		37.여래출현품		
보광명전	제8회	38.이세간품	행(行): 託法進修成行分	修行하는 길과 방법을 잘 알고 그 방법에 의지하여 나아가면, 수행이 모두 원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
급고독원	제9회	39.입법계품	증(證): 依法證入成德分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님의 萬行萬德을 성취하는 모습. 53인의 선지식을 찾아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52단계로 점차 證得하는 과정.
		40.보현행원품		화엄경을 보는 이들도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려면 열 가지 덕목을 실천하라고 권함[大行願].

Ⅱ. 信解行證과 華嚴經

1. 信·믿음

1) 信의 불교적 정의

信에 대한 산스크리트 어원은 'sraddha'로 번역 '마음(heart)'을 뜻하는 srat와 '놓다', '두다'의 의미를 지닌 dha로 구성되어 있다. 마음을 놓아둔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곳에 자신의 마음을 바치는 것으로써 헌신할 수 있는 곳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어 확고부동하게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信心·信樂·正信·淨信·敬信등의 漢譯이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것은 信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開信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불교 경전의 몇몇 주석가들은 믿음을 몇 가지로 나누었는데, 신앙적·정서적인 믿음으로서의 신애(信愛: bhakti), 노력을 포함하는 의지적인 믿음으로서의 정신(淨信: prasada), 이성적·지적인 믿음으로서의 신해(信解: adhimukti)가 그것이다. 'prasada'는 믿음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淸澄해진 것을 의미한다. 이는 疑心이 사라져 淸淨한 마음의 경지를 가리킴과 함께 疑心을 사라지게 하는 對象에게 자신을 내어맡기는 태도를 말하며 고요한 기쁨이나 만족이 느껴지는 心境을 가리키기 때문에 澄淨·歡喜·淨信·信心·信 등으로 다양하게 漢譯되었다.

'adhimukti'는 어떤 對象에 대해 마음을 강하게 쓰는 것을 말한다. 만약 그 對象이 信의 對象인 경우는 信의 뜻을 가져 앞의 sraddha와 같은 의미가 된다. 漢譯으로는 信解·勝解·解·解脫·欲樂·信樂·信 등이 있으며 信解와 勝解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

2) 믿음의 대상

구사론에서 信은 대선지법의 하나로 '마음으로

하여금 청정하게 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성유식론에서는 信의 특징을 '존재함을 믿는 것', '덕이 있음을 믿는 것',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이라 했고 '물을 맑히는 구슬이 탁한 물을 청정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여 信의 정신적 작용을 '마음을 맑게 하는 기능'으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 믿음의 대상은 佛, 法, 僧 삼보인데 이러한 信觀은 후대에 들어서 변하게 된다. 열반경에서는 因果와 三寶에 대한 믿음, 대승기신론은 三寶에 앞서 眞如에 대한 믿음이 첫째 항목으로 강조되고 화엄경에서는 本來佛과 三寶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모두 공통적으로 三寶를 믿음의 근본적 대상으로 삼지만, 대승기신론이나 화엄경에서 나타나는 대승불교적 특징은 本覺思想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는 華嚴經 '여래출현품'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爾時如來 以無障 淸淨智眼 普觀法界一切衆生 而作是言

"奇哉奇哉 此諸衆生 云何具有如來智慧 愚癡迷惑 不知不見"

그때 여래가 걸림이 없는 청정한 지혜의 눈으로 온 법계의 모든 중생을 두루 살펴보고 말씀하시기를 "기이하고 기이하다. 일체 중생들이 여래의 지혜를 다 갖추고 있으면서 愚癡하고 迷惑되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구나."라고 하셨다.

3) 華嚴經속 信의 요소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이 직접 菩薩들을 향해 설법하지 않는다. 오히려 설법의 주체가 되는 것은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비롯한 여러 菩薩과 善知識들이다. 화엄경에서는 깨침에 대하여 세 가지 다른 설

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방광불의 깨침과 문수보살의 깨침, 선재동자의 깨침이 그것이다. 대방광불의 깨침은 고타마 싯다르타가 깨침을 이룬 마가다(Maghadha)국의 보리수 아래, 문수보살의 깨침은 보광전, 그리고 선재동자의 깨침은 제타바나(Jetavana)의 수도원이 무대가 된다. 어디에서건 부처님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다. 그저 온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을 뿐이다. 그 빛을 받고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은 삼매에 들어가고, 삼매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낸다. 화엄경 속의 부처님은 역사적인 인물도 아니고, 철학적 개념도 아닌 체험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 체험은 부처님의 측면에서는 발산하는 빛으로 나타나며, 菩薩의 측면에서는 삼매로 나타난다. 부처님의 빛과 보살의 삼매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信이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깨침에 관한 이야기에 반드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따른다. 화엄경의 거의 모든 대목에서 믿음을 핵심 주제로 거론하고 있지만, 특히 일곱 번째 여래명호품, 여덟 번째 사성제품, 아홉 번째 광명각품, 열 번째 보살문명품, 열 한 번째 정행품, 열 두 번째 현수품이 가장 본격적으로 믿음의 문제를 다룬 부분으로 꼽힌다.

여기에서는 현수품의 현수보살의 계송을 통해 信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수품에서는 문수보살이 청정행의 대공덕을

말하고 나서 다시 보리심의 공덕을 보이려고 현수보살에게 수행공덕을 말하게 하고, 이에 현수보살이 신심의 공덕과 공덕의 능함을 다음과 같이 계송으로 설하고 있다.

信爲道元功德母 長養一切諸善法 斷除疑網出愛流 開示涅槃無上道 信爲功德不壞種 信能生長菩提樹 信能增益最勝智 信能示現一切佛

'信은 道의 으뜸이요 功德의 어머니가 되는 것, 一切 모든 善法을 增長하고 一切의 모든 疑惑을 除滅하며, 삼독의 흐름에서 나오게 하여 無上道를 示現하고 開發 하느니라. 믿음은 썩지 않는 功德의 種子, 믿음은 보리수를 생장케 하며 믿음은 수승한 지혜를 증장케 하고 믿음은 일체 부처님을 드러내도 다'²⁾

淸涼은 『80華嚴』의 經文을 주석하면서 '信으로 말미암아 善을 길러서 이 菩提를 얻으며, 信으로 말미암아 疑心을 끊고 愛에서 벗어나 涅槃을 證得하나니, 身心의 如來知見을 信하지 않으면 어찌 능히 菩提涅槃을 開示할 수 있으랴?'³⁾라고 설명한다. 信은 覺道의 根源이니 자기 身心의 如來知見을 信하여야 菩提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러한 信德 내에는 菩薩道의 一切가 이미 含藏되어 있으니 菩薩道는 信德으로부터 전개됨을 알 수 있다.⁴⁾ ㉔

2) 『80華嚴』 권14, 大正藏 10, p. 72中

3) 『大方廣佛華嚴經疏』 권16, 大正藏 35, p. 620上

4) 信心이 원만 성취되면 얻어지는 공덕, 즉 열가지 삼매는 다음과 같다. 1)원명해인삼매문(圓明海印三昧門) 2)화엄묘행(華嚴妙行)삼매문 3)인다라망(因陀羅網)삼매문 4)수출광홍(手出廣洪)삼매문 5)현제법문(現諸法門)삼매문 6)사섭섭생(四攝攝生)삼매문 7)궁동세간(窮洞世間)삼매문 8)모광각조(毛光覺照)삼매문 9)주반염려(主伴嚴麗)삼매문 10)적용무애(寂用無涯)삼매문

나한님들도 가을을 찾까요?

지오 / 사교과



☼ 이 그림은 운문사 오백전의 오백나한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상구보리 하화중생

정목스님



1. 존재는 파동

인간이 하나의 파동이라는 사실은 구태여 양자물리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미 상식이 된 세상입니다.

어떤 집단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유난히 튀거나 별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주파수가 다른 사람이란 표현을 흔히 하지만 인간이 하나의 파동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그 표현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파수가 다른 사람은 배척하고 주파수가 같은 사람은 끌어당기는 것은 인지상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면 서로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파동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배척하는 사람 또한 가만히 들여다 보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나와 너무나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하나 날개로 떨어져 있는 존재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르지 않은 불이(不二)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른 파동을 내는 개성적인 고유한 존재이면서도 또한 서로 서로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조화의 존재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내가 누군가 타인을 배척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배척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와 파동이 다른 사람, 주파수가 다른 사람을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배척하기보다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불이(不二)정신에 깃든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중생활을 하는 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불이의 의미를 현대적인 뜻으로 새롭게 해석해서 주파수가 다른 그 어떤 사람이라도 수용하고, 타인의 잘못에 관용을 베푸는 자비의 마음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주는 완벽한 조화 속에 돌아가고 있고, 불교의 진리 또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완전한 조화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습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불가(佛家)의 조화는 우선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로 불리는 사부대중의 조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산문(山門) 바깥세상의 젊은 세대들에겐 오히려 여성이 남성을 압도하는 증거가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학 수능 시험의 고득점자 숫자부터 사법고시 합격자 숫자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며

약진하는 모습을 수월찮게 찾을 수 있는데 그간의 남성우월, 또는 남존여비의 풍토 속에서 그것은 남성과 여성의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에선 바람직한 일입니다.

바깥 사회가 이렇진대 승가 또한 구시대적인 이분법에 의해 마치 비구가 비구니 보다 더 우월한 존재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나 자신의 발전과 불교문화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0년 전을 돌아보면 참 세상은 많이도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등 미디어나 과학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인류의 의식 또한 크게 발전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는 과거 천안통이니 천이통이니 하는 초월적인 능력이 열려야 접할 수 있던 일들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지요. 내 몸이 가서 닿을 수 없는 먼 곳의 현실까지 파악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천안통(天眼通)이며 천이통(天耳通)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듣는다고 해서 마음의 문까지 따라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신기한 일들이 바로 나 자신에게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구시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계의 발달일 뿐이지 인류의식이 발전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기계의 발달이 인류의 의식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그 변화를 따라 진리를 전하는 수단과 방법에도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격변하는 세상에 살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수행자로서, 붓다의 제자로서 법 따라 진리 따라 출가자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3. 발원(發願)의 씨앗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제가 열여섯 살의 어린 나이로 출가했을 때 일입니다.

그 당시 해인사 삼선암에 계시던 성문 노스님께서는 삭발한 저를 보시더니 손을 꼭 잡아주시며 "너는 훌륭한 법사가 되어라. 먼 미래에는 많은 사

람들이 부처님 법에 대해 한 마디 듣기만 하여도 마음이 열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생을 선승으로 살아오신 노스님께서 참선을 열심히 하는 선객이 되라는 말씀에 앞서 법사가 되라고 하셨던 것은 왜였는지, 스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저는 그 당시 법사가 될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노스님 말씀을 좇아 훌륭한 법사가 되겠다는 발원을 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의 내 삶에 이정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 노스님의 조언에 이어 저로 하여금 법사의 길을 걷게 만든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출가 후 처음 맞은 부처님 오신 날에 은사스님은 제게 상당법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겨우 열여섯 살 밖에 안 된 어린아이에게 수백 명 대중을 향해 초파일 법문을 하라니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것은 커다란 파격이었습니다.

무슨 법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밤새 고심하다가 <빈자의 일등>에 관한 이야기를 법문 주제로 정하고 가난한 여인의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나 또한 목숨이 꺼지는 그날까지 부처님 법을 잇는 등불로 살아가겠다는 발원을 신도님들께 들려드리겠다는 생각을 원고로 작성해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은사스님은 법상에 오른 것처럼 그 자리에서 시범을 보여 보라고 주문하셨지요. 스님 앞에서 저는 서둘러 법문을 시작했고, 그런 저를 바라보던 은사스님은 법문의 내용 뿐 아니라 설법할 때의 손짓과 몸동작, 법상 아래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는 신도들과 눈빛으로 교감하는 방법까지 자세한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스님은 그때 마치 방송국의 PD와 같은 역할을 하셨던 셈이지요.

어린 사미니의 첫 법문이 훌륭했다 해도 얼마나 훌륭했겠습니까만 그것이 설령 깨달음의 법문은 되지 못했는지언정 수행자로서 한 생을 살아가겠다고 서원한 한 어린 영혼이 진리의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순수한 의식이나 다름없었고 그 순간부터 평생 수많은 장소에서 대중을 상대로 설법을 하는 법사로서의 제 꿈은 영글어 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4. 높아진 대중 의식 속의 전법

일반적으로 불가에서는 법사보다 선승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분위기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어서 공부하는 학승이나 법사가 그다지 인정을 못 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세상은 그 옛날 노스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훌륭한 법사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명강의를 하는 명강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수많은 대중들의 마음까지 미디어의 힘을 빌려 열어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행자는 치열한 구도 정신으로 스스로의 내면을 응시하며 깨달음을 구하는 동시에 붓다의 법을 중생에게 널리 전해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전하는 방법과 기술이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에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첨단 미디어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미디어를 무시하고선 전법의 효율성 또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리의 근본은 불변하는 것인 만큼 그것을 익히고 전하는 방법이 꼭 첨단이라야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며 진리의 세계란 것이 효율성만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법을 전하는 승려의 한 사람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미디어의 영향으로, 법문을 듣는 대중의 의식수준 또한 놀랄 만큼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정보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지식들이 인간의 의식 속에 알음알이로 작용하며 분별심을 일으키고, 그 분별심이 참된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정보들이 인류에게 주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새로운 시대의 수행자들에게는 필요한 덕목입니다.

5. 섬세함은 우리의 장점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바다를 건너면서 태풍으로 확대되는 '나비 효과'처럼 하나의 파동으로 시작된 우리의 생각 또한 처음에는 나비의 날개짓에 불과하지만 커지면서 위대한 창조의 힘으로 작



용합니다. 세상에 생각 없이 창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가 승려로 살겠다는 하나의 생각, 단지 파동에 불과했던 한 생각이 능동적인 의지를 통해 계를 받게 되고, 강원(강원)에 가고, 치열한 정진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해탈시켜 나가듯 내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자비의 파동 또한 우주를 움직이는 커다란 에너지가 되어 나와 타인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수행과 포교의 현장에서 수많은 대중의 상담을 받다보면 많은 이들이 이 시대 비구니 스님들께 바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감싸주는 어머니같은 존재이거나 편안하고 신뢰를 주는 친구같은 존재일 때가 많습니다.

여성의 참여와 여성의 능력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휘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생태적으로 섬세한 여성의 감수성과 부드러움이, 삶에 지치고 고단한 중생들을 위로하며 진리를 전하는 일에 큰 장점이 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흔히 21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선도하는 이런 시대에 부드러움이 장점인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은 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앞서가는 소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36년 전, 선객이셨던 성문 노스님이 제게 법사의 길을 권하셨던 것처럼 저 또한 후학들에게 첨단 문화의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앞서 가는 법사의 길을 연구하고 정진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부대중의 일원으로서, 승가를 움직이는 커다란 바퀴의 한 축으로서, 자랑스러운 비구니인 우리들은 우주를 품어 안는 모성과, 변화하는 외부 세계를 향해 첨단의 포교 방식을 수용하고 개척해 갔으면 합니다.

보제존자 나옹스님 발원문

편집부

願我生生處(원아세세생생처)
常於般若不退轉(상어반야불퇴전)
如彼本師勇猛智(여피본사용맹지)
如彼舍那大覺果(여피사나대각과)
如彼文殊大智慧(여피문수대지혜)
如彼普賢廣大行(여피보현광대행)
如彼地藏無變身(여피지장무변신)
如彼觀音三三應(여피관음삼이응)
十方世界無不現(시방세계무불현)
普令衆生入無爲(보령중생입무위)
聞我名者免三途(문아명자면삼도)
見我形者得解脫(견아형자득해탈)
如是教化恒沙劫(여시교화항사겁)
畢竟無佛及衆生(필경무불급중생)
願諸天龍八部衆(원제천룡팔부중)
爲我擁護不離身(위아옹호불리신)
於諸難處無諸難(여제난처무제난)
如是大願能成就(여시대원능성취)
發願已歸命禮三寶(발원이귀명례삼보)

원컨대 저희로 하여금 세세생생 나는 곳마다
언제나 반야지혜 좋은 인연 물러나지 아니하여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한 지혜를 얻게 하시며
노사나 부처님처럼 큰 깨달음을 얻고,
문수보살님처럼 깊고 밝은 큰 지혜와
보현보살님의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지장보살님처럼 끝없는 몸을 나누며
관세음보살님처럼 삼십이응신을 갖추어서
시방세계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니면서,
널리 중생들을 무위도에 들게하며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삼도의 괴로움을 여의고
내 모양을 보는 이는 다 해탈을 얻어지이다.
이와 같이 교화하기를 영원토록 계속하여
필경에는 부처도 중생도 없는 세계 이뤄지이다.
원하노니, 모든 천룡과 팔부중이
이내 몸을 옹호하여 잠시라도 뜨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곳에서도 어려움 없게 하오며
이와 같은 큰 서원 모두 다 성취하여지이다.
발원하며 삼보님께 귀의하고 예배드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ॐ

이덕무와 그의 벗들 이야기

- 안소영의 『책만 보는 바보』를 읽고 -

성민 / 운문사 한문불전 대학원

역사(歷史)라는 단어 속에 나타난 시제는 과거형이요, 설명 위주의 서술들은 지루함을 줄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역사라는 단어도 찬찬히 살펴보면 결국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평범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덕무와 그의 벗들은 지금으로부터 2백여 년 전의 사람들이다. 흔히 '조선 후기의 실학자'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그저 활자로만 다가오는 사람들이다. 우리와는 거리를 둔 채 그저 책 속에서만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짧지 않은 동안 그들도 분명, 우리처럼 온갖 감정,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희망과 좌절도 겪었을 것이다. 그들을 우리 곁으로, 숨 쉬는 인간으로 불러내기 위해 저자는 '간서치(看書痴, 책만 보는 바보)'라 자처하며 평생 책을 벗 삼아 살며 풍부한 감성과 섬세한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이덕무가 되어 그의 벗들과 그 시대를 불러낸다.

이덕무는 조선 정조 때의 문인, 실학자로 자는 무관(懋官), 호는 청장관(靑莊館)이다. 왕족의 후손이지만 아버지가 서자였기에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 박학다식하고 시문에 능하여 젊어서부터 많은 저술을 남겼다.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유득공 등과 사귀었으며, 중국에까지 알려진 사가시인(四家詩人: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이서구) 중의 한 사람이다.

내성적인 성격의 그는 집안 형편상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게 되면서 더욱 말이 없어졌고, 오직 책 속에서 책과 대화하며 자라게 된다. 그에게 책은 단지 보는 대상이 아니라 듣고 보고 느끼는, 살아 있는 존재이며 세계였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서자 신분의 그가 마음을 둘 곳은 책 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덕무가 책과 벗하고, 책 속의 사람들과 벗한 나날들은 오래도록 계속된다.

그러던 중 이덕무는 백담(원각사지 십층석탑, 지금의 탑골공원 안에 있음)이 있는 대사동(지금의 인사동)으로 이사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비로소 평생지기인 박제가, 유득공, 백동수, 이서구 등을 사귀게 된다. 이들 중 가장 나이 어린 이서구를 제외하면 모두 서자 출신으로 힘든 세월을 건디는데 서로 의지가 되어준 벗들이다. 백담 아래 동네에는 이들 외에도 서자 출신 문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백담파(白塔派)'라고 불렀다.

이덕무와 그의 벗들은 모두 '조선 후기의 실학자'라 불린다. 이 책에서는 굳이 '실학'이란 말을 쓰지는 않지만, 이덕무와 벗들의 생각을 통해 실학이 생겨난 배경, 실학자라 불린 사람들이 지닌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언뜻 생각하면 책벌레 이덕무와 실학은 어딘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생각은 실학을 그저 편리

함이나 효율성만을 얻으려는 실용이란 말로 이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백과사전처럼 해박한 이덕무의 지식은 풍부한 고증을 거쳐 엄격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 또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에 입각한 실학적인 학문 태도라 할 수 있다.

'실학'은 사색이나 논변 자체를 위한 사대부의 학문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갖 모순과 문제를 해명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학문으로의 커다란 방향 전환이었다. 당시 조선 사회의 젊은이들은 이제까지 내려오는 학문과 제도의 권위에 따르지 않고 현실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개혁해 나가려 하였다. 그리고 젊은 그들에 의해 세상은 새로운 방향을 향해 꿈틀대고 있었다. 이덕무와 벗들은 그러한 시대의 흐름 한가운데 있었다. 사회의 문제가 다양한 만큼 이들이 관심을 기울인 분야도 조선의 역사, 농업, 상공업, 관료제 개혁 등 다양하였다.

하지만 이 책은 무슨 무슨 학파로 분류되는 정형화된 실학자들로서 이덕무와 그의 벗들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들 개개인의 가슴 속에 담긴 생각을 먼저 헤아리며, 세상과 인간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에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덕무가 쓴 짧은 자서전 [간서치전(看書痴傳)]을 접하고 그에게 흥미를 느껴 그의 저술은 물론 관련된 글을 두루 찾아보게 되었고, 그러한 관심은 이덕무와 친하게 지낸 인물들과 그 시대에까지 이어졌다. 오랜 기간 두루 섭렵한 역사적 자료들과 책 속의 사실들에 기반하여, 먼저 집필을 위한 연대표와 이들 서로 간의 관계도를 만들었고, 그런 다음 그들이 남긴 글에서 드러나는 감정과 행동, 다른 벗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각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여 그려 나간다.

사실을 열개로 상상의 창을 내어 이덕무의 시대로 들어간 저자는 이덕무의 마음으로 그의 벗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독이며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이덕무의 섬세한 눈길, 혹은 저자의 풍부한 상상력과 감성으로 빛어낸 인물들은 우리가 익히 알아온 역사 속 인물의 모습과는 다르다.

예컨대 그가 가장 아끼는 벗 박제가는 언뜻 보기에는 대범해 보이지만, 옅은 녹색 빛이 도는 눈동자가 무척 슬퍼 보이는 인물이다. 성미가 급하고 팔팔했다는 연암 박지원은, 웃을 때마다 무성한 수염이 위로 활짝 퍼지는 모습이 아이처럼 천진해 보인다. 매사에 치밀하고 날카로운 정조 임금도 매서운 눈매 너머 따뜻함과 슬픔을 내비친다. 이렇듯 이덕무와 그의 벗들 그리고 그 시대상이 마치 지금 우리 곁에서 숨 쉬고 있는 듯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은 단지 저자의 상상력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과의 균형을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기에 더욱 생동감 있고 설득력이 있다. 역사 속 인물, 옛사람들을 우리 앞에 복원해 내는 독특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덕무와 벗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다음 세대에 나누고자 했다.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그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다면 누구나 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와 지금의 시차를 넘어, 양반과 서자라는 신분의 차이를 넘어,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의 차이를 넘어, 나이가 많고 적음의 차이를 넘어, 우리도 그들과 벗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그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가 진심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시간 속에 스며든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나눈다면,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다시 만나리라는 믿음으로…….

이덕무와 그의 벗들을 사귀어 보자! 鷗



가마솥 행자의 인욕바라밀

- 구정선사 이야기 -

보 각 / 사집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불사하지 않았던 여러 선사들의 구도 행각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된다. 그 가운데 오늘날 '인욕'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선사 한 분을 만나보려 한다. 한 번쯤 절에서 '행자', '노스님' 그리고 '가마솥'이 그려져 있는 벽화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벽화 속의 노스님은 신라 말 고려 초 당대 산골짜기에 선종(禪宗)을 퍼뜨린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하나인 성주산문(聖住山門)을 일으킨 무염(無染)선사이고, 그림 속 행자는 그의 제자로 인욕수행의 대표적 선사인 구정(九鼎)선사이다.

구정선사는 출가 전 홀어머니를 모시는 비단장수 청년이었다. 어느 날 명주(강릉)땅을 가다가 대관령 중턱에서 쉬는데 풀밭에서 꿈쩍 않고 서 있는 노스님을 보게 된다. 청년이 그 노스님에게 연유를 묻자 노스님이 말씀하셨다. "옷 속의 이와 벼룩에게 내 피를 공양 중이라네." 이 말에 청년은 감동하여 그 노스님을 따라가 수행하기로 결심한다. 바로 이 노스님이 무염선사인 데 그는 청년을 제자로 받아들이기 전, 먼저 아궁이에 가마솥을 걸도록 시켰다. 행자는 가마솥을 정성껏 걸었으나 노스님은 곧 부뚜막을 허물어뜨리고 서는 아궁이를 새로 만들고 가마솥을 다시 걸도록 했다. 행자는 아무 말 없이 정성껏 다시 아궁이를 짓고 솥을 걸었다. 그러나 스님의 대답은 또다시 하라는 말뿐이었다. 행자는 이렇게 하여 무려 아홉 번이나 솥

을 다시 걸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더욱더 정성을 기울였다. 노스님은 청년의 지극한 구도심을 인정하고 솥을 아홉 번 고쳐 걸었다는 뜻에서 '구정(九鼎)'이라는 법명을 지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구정스님이 어느 날 스승에게 "대체 부처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는데 글을 잘 몰랐던 터라 스승이 "즉심이 부처이니라."라고 한 대답을 "죄신이 부처이니라."라고 잘못 알았지만, 절대적으로 스승의 말씀을 믿고 '어째서 죄신이 부처인가?'를 궁구하기 시작했다. 죄신을 머리에 이고서 오며 가며, 누웠든지 섰든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온통 죄신이 왜 부처인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하루는 산에서 '죄신아, 어째서 네가 부처이냐?' 하며 그만 삼매에 들었는데 문득 죄신의 끈이 뚝 끊어지는 순간 홀연히 대오(大悟)하였다. '즉심시불(卽心是佛)'을 '죄세기불'로 착각하였지만, 그것이 곧 화두로 일념이 되어버린 것이다. 어떤 화두가 잘 들리고 안 들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스스로가 한 가지 화두에 대해 간절한 의심을 갖고 그것을 일념이 되도록 참구해가며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활구참선법의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오대산 동대 관음암과 그 근처 '구정굴'이란 곳에 무염선사와 구정선사가 함께 수행했었다는 발자취만 남아 있을 뿐 구정선사에 대한 정확한 생몰연대조차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구정선사의 이 유명한 일화는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 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욕에 대해 다시 한 번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가슴 속 깊이 그 정신만은 오롯이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구정선사가 보여준 참된 인욕은 단순히 막연한 강제성을 띤 인욕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서는 인욕바라밀을 행하면서 '그것이 인욕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인욕의 완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애써 마음에서 일으키지 않고 '나'라고 하는 관념을 완전히 내던져 버린 무아(無我)의 상태에서 나오는, 힘이 없는 진정한 인욕을 구정선사는 몸소 보여주셨고 또한 수많은 선사들도 그러한 경지에서 도를 얻기 위해 열심히 수행정진하셨다.

우리나라에 구정선사가 있었다면 티베트의 역사 속에는 '티베트의 성자'라 불리는 밀라레파가 있다. 이 분 역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몇 번이고 무거운 돌을 나르며 돌탑을 쌓았다가 허물기를 반복하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참아내며 가르침을 전해 받은 것을 볼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토록 강한 신념과 진정한 인욕이 밑바탕 되었을 때 결국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솥을 아홉 번이나 걸도록 시켜 제자를 시험한 스승과 가르침을 받기 위해 어떠한 불평없이 그대로 스승을 믿고 묵묵히 따른 제자 모두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깨우침을 주기 위해 출현하셨던 보살이 아닐까. ॥

달과 덕주와 마애불

- 월악산 덕주사를 다녀와서 -

덕 해 / 사교반



“이곳에서 서쪽으로 고개를 넘으면 서천에 이르는 큰 터가 있을 것이다. 그 곳에 불사를 하고 석불을 세우고, 북두칠성이 마주 보이는 영봉을 골라 마애불을 조성하여 만백성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잊지 말라.” 문경 하늘재에 이른 마의태자의 꿈에 나투신 관세음보살은 말했다. 마의태자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아들이다. 덕주공주와 함께 금강산으로 떠나는 길이었다. 일행은 꿈속의 장소를 찾아 불사를 지으며 8년을 머물고, 마의태자는 금강산으로 떠났고 덕주공주는 남았다. 북두칠성이 마주 보이는 영봉의 마애불, 그 곳이 덕주사이다.

덕주사를 찾아가는 길은 중앙으로 향해 있었다. 대구에서 문경을 넘어 도착한 곳은 충주. 충주는 『삼국사기』에 ‘전략상의 요충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만큼 내륙의 중심이었다. 충주, 단양, 제천, 문경에 걸쳐있는 월악산은 충주호를 품고 있어 내륙임에도 산맥과 강의 어울림이 산속의 섬을 연상케 했다. 우리는 충주호를 보며 산기슭을 따라 한 시간 남짓 가서 남쪽 기슭에 닿았다.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덕주사에 오른다. 계곡입구에서 십오 분 정도 걸으면 덕주산성이 나온다. 산 너머로 길게 뻗어 있는 덕주산성. 마애불을 중심으로 총 4겹으로 둘러싸인 석축 산성은 꼭 길게 같다. 산성 안으로 들어서자 곧 덕주사다. 덕주사의 창건자와 연대는 미상이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덕주사는 월악산에 있다. 속설에 전하기를 덕주부인이 절을 창건했으므로 덕주사로 이름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 『대동지지』 「충주산수조」에는 ‘동으로 45리에 있어 청풍경계를 이룬다. 상·하덕주사가 있다.’라고 기록돼 있다. 즉, 지금의 마애불 절터가 상덕주사이고, 마애불로 가는 초입의 덕주사가 옛날의 하덕주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상·하덕주사 창건 때부터 이어져 온 법당은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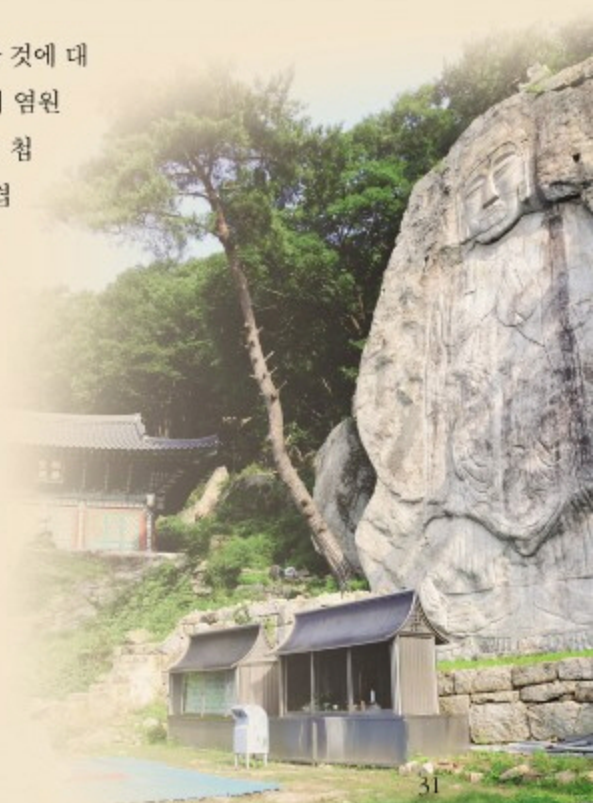
하늘까지 닿은 계단을 오르자 대웅전 앞마당이다. 넓다. 계곡이 사라지고 산세가 시원하다. 마당 한편의

종루는 날아갈 듯하다. 시원하지만 당채가 대웅전만 보여서 당황스러웠는데 덕주사는 산신각-대불정-주비각-대웅전-사무실-종루-후원-약사전-관음전-요사채-부도밭에 이르기까지 ‘— 자형’ 가람 배치이다. 암반석의 갈라진 틈 사이에 화강암에 산신도를 양각해 봉안한 산신각. 월광사지 입구 논둑에서 발견된 남한 유일의 범자비 대불정주비. 수몰지 정금사 절터에서 모셔온 고려 시대 석불 약사여래부처님. 덕주사는 60년대부터 불사를 시작해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덕주사를 지켜온 스님들의 자취를 품고 있다. 현재는 2007년 부임한 원경스님이 상·하덕주사의 도량 불사와 함께 산사음악회, 지역의료봉사활동 등의 불사를 안팎으로 하고 계신다. 빈 공간을 채울 당채를 상상하며, 너른 마당 가득 모였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를 상상하는 사이 마당에 저녁이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마애불에 오른다. 월악산 영봉을 향해 걸어서 40분 정도 오르면 그 곳에 마애불이 있다. 오르는 중간에 한 겹의 덕주산성을 만난다. 또 하나의 결계 속으로 들어간다. 때론 몽골군을 때론 왜적을 막기 위해 한 돌 한 돌 쌓았을 손과 마애불을 새겼을 손에 담긴 염원이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가쁜 숨을 몰아 쉴 때쯤 마애부처님을 만난다.

덕주공주가 이곳에 덕주사를 짓고, 법당의 동편 큰 암벽 남면에 새긴 높이 13m의 거대한 마애부처님. 자신의 형상을 새겼다고, 또는 금강산으로 떠난 마의태자의 얼굴을 새겼다고 전해지는 마애부처님. 아침 햇살에 한껏 빛나는 마애부처님을 올려다본다. 무엇에 매달려 저 큰 암벽에 부처님을 새겨 넣었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 저 암벽과 말을 했을까. 말없이 바라보다 시간을 잊었다. 문득 덕주공주도 이곳에선 망국의 한도 잊었으리란 생각이 스쳤다.

전설은 민중의 염원을 품고 자란다. 염원에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움이 숨 쉰다. 달빛이 아련한 건 그런 민중의 염원을 안고 흐르기 때문일까. 달이 뜨면 영봉에 걸린다는 월악산. 첩첩이 포개놓은 꽃잎 같은 월악산. 그 곳에 덕주사가 있다. 점점의 산성으로 둘러싸인 덕주사는 신라 마지막 공주인 덕주공주의 삶을 기린다. 아마, 민중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씩 품어둔 염원 하나를 덕주공주가 새겼다는 마애부처님 앞에 풀어놓고 갔으리라. 그러니, 달빛 흐르는 가을 월악산에 물이 들거들랑 덕주사에 한 번 찾아가 볼 일이다. 가서, 달빛 흐르는 밤에 걸어 나오실 것만 같은 마애부처님을 한 번 만나 볼 일이다. 흐르는 달빛에 슬쩍, 그리움 하나 놓아버릴 일이다. 그리고 만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라도 해 볼 일이다. 



불교호스피스 자비行者를 찾아서

자 경 / 대교과

대교반이 되어 화엄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華'라는 글자 하나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사상으로 바라보며 사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華의 의미는 꽃이 피어서(발심) 열매를 맺어가는 시작(보살이라는 꽃으로 피어 맺는 것)의 뜻으로 발심과 보살행의 수행의 때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므로 화엄(華嚴)이란 아름다운 꽃,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장엄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정하고 올바르게 덕스러운 보살의 행에 비유한 것으로 수행의 결실을 맺는 成佛이 화엄경의 사상임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붓다는 어떤 보살행을 했을까?

현대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보살행에는 무엇이 있을까?

2500년 전 웰다잉(well-dying) 사상가이며 호스피스¹⁾ 실천가였던 붓다께서는 머무신 큰 사원마다 열반당을 설립해 직접 병든 수행자와 중생들을 치료하시며 열반에 들 수 있도록 가르침을 설하셨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도 요구되는 보살행이며, 웰다잉 문화²⁾ 정착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불교호스피스를 원력으로 삼아 정진하는 자비行者 세 분을 찾아가 보았다.

인터뷰 I 매 순간 밝게, 즐겁게 불교호스피스를 하신다는 수상스님을 뵈러 불교호스피스센터 불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반야사로 발길을 향했다.

Q. 호스피스 수행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수상스님 : 서울 충정사에 있을 때 암환자 신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종교의 성직자와 신자들이 병석의 환자에게 쏟는 정성과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수행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 후로 15년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마다 알고 간병과 임종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교장래의 정착화를 위해 임종환자를 위한 시다림 기도와 입관기도를 한글화된 불교의식으로 진행하며 조가(弔歌)를 통해 슬픔을 진정시켜주는 불교장래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제주도에서 하고 계신 불교호스피스 활동에 대해서

수상스님 : 제주의료원, 제주대학병원 등에서도 정기적인 간병 및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병원에서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힘겨워하시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로 평온할 수 있게 염불

1) 호스피스는 중세에 예루살렘 성지로 가는 순례자들이 편히 쉬어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숙소(Hospes)에서 기인된 말이다. 현재에는 임종의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두병 기간에는 높은 수준의 치료, 간호, 사회적·정신적 보살핌을 제공하고 임종 시에는 고통 없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고 환자의 가족들 또한 같이 보살피 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2) 「臨終의례 문화와 佛敎徒의 역할」, 대한불교조계종 학인논문, 자경, 2009.

Well-dying 문화			
죽음준비교육 복지시설	호스피스, 완화의학		장례·상조회
	터미널케어	임종	임종의례
임종의례 문화			



입관기도 후 봉사자분들과 함께

제주충감정사와 반야사 주지

2005년 제주불교호스피스 비라밀실천회 창단

2005년 제주병원 · 2009년 제주의료원 병원법당 창단

2010년 불교 법당 소식지인 <피안의 언덕> 발행

과 주력을 노래로 표현해서 편안하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호스피스활동을 해오면서 말기 암환자들에게 부처님 도량에서 기도하며 잠시 동안이라도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불교호스피스센터 건립을 위한 불사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Q. 불교호스피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수상스님 : 호스피스는 수행입니다. 바라밀을 힘써 닦고 보살행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의 청정도량이며 바로 보리도량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보살행이야말로 성불의 길로 가는 최선의 수행법으로 불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호스피스 불사는 바로 108배를 하고 염불을 하고 경전을 읽듯이 이 또한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수행은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잣거리에도 있고 병원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이미 부처님 시절부터 행해져 왔으며 부처님께서는 최초의 호스피스 실천가이셨습니다. 호스피스라는 말을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비하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불교적인 '비하라'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이는 종단을 초월하여 범불교적으로 하나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II 암 투병 중인 도반스님 문병을 갔다가 호스피스하러 오신 도영스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출가 전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이 왜 '信受奉行' 인 줄 알아요?"하며 行의 의미를 가슴속 깊이 새겨주셨던 도영스님을 중앙승가대학원 불교상담원 사무실에서 인터뷰 하였다.

Q. 한국에서 불교호스피스 활동 현황에 대해서

도영스님 : 염불자원봉사단에서 법사로 조가를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호스피스환자에게 음악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통증의 고통과 죽음이 두렵고 불안한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따뜻하고 정성어린 간호가 필요하지만, 불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에는 호스피스 병동이 없습니다. 불교호스피스교육을 받았더라도 실천 수행 활동처가 극히 소수이고 이웃 종교 및 일반 병원병동으로 가서 이웃 종교 호스피스교육을 받고 활동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불자들이 이웃 종교 병동에서 간호를 받고 개종하는 등 안타까운 현실이 불교호스피스 활동의 현주소입니다.

Q. 호스피스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영스님 : 이웃 종교 병원의 경우 스님의 호스피스 활동은 제약이 따릅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병실을 어느 날 들어가도 된다고 허락을 해서 18세 남학생의 입원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환자는 무척 놀라며 의아해했습니다. 스님이 환자들을 위해 병원에 오신다고는 생각도 못했더니 반가워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할아버지가 독실한 불자님이셨기에 자신도 불자라고 생각했지만 친절하게

3) 일본불교계에서는 호스피스라는 용어가 기독교적인 성격을 띄고있다고해서 불교적인 용어로 대체하고자 하여 사원 안주처를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인 [Vihara비하라]가 제창되었습니다. 다만 호스피스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불교의 기본이념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조계종 염불자원봉사단 발대식

서울 암센터, 일산 동국대학교병원, 분당 보바스병원, 부천 성누가 병원,
수원 빈센트 병원(8년) 등에서 15년간 호스피스활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염불자원봉사단 지도법사(염불 및 조가·찬불가지도)
불교 호스피스교육, 불교문화심리치유사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심리치료 및 음악치료 강의)
종로노인사회복지관, 신사중합복지관(집단·개인상담 및 가정방문상담)슈퍼바이저

보살과 주시는 수녀님과 봉사자들의 정성이 고마워 저를 만나기 전날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대세(죽음 전 받는 세례)를 받았고, 종교문제로 방황하게 된다고 해서 “괜찮아요, 하느님과 부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행복하지요, 축하해요” 라고 격려했지요. 하지만 자기는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뜻을 전할 수가 없었고 가족들은 그의 마음을 모르는 채 아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카톨릭으로 개종, 성당에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불교호스피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도영스님 : 호스피스는 어느 누가 아니라 곧 나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와 가족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봉사가 아니라 부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며 실천하는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수행의 일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이야기〉는 가족의 죽음을 수용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자세인 사무량심을 생각하게 합니다. 호스피스는 나도 남도 우리 모두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은 곧 오늘이며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멈추고 바라보며 바르게 통찰하게 하는 수행방법입니다.

호스피스는 가장 짧은 시간에 환자가 지치지 않도록 살피가면서 아픈 마음을 읽고 들어주며 마음을 안정시켜 잠시나마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상담요법입니다. 대부분 스님들은 환자와 가족을 위한 병동라운딩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병원 법당을 운영하는 스님들께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만큼 불교 상담심리나 호스피스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연구관리조직구성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⁴⁾ 병원 법당 스님들의 역할과 활동 및 관념 등이 미래 불교호스피스 발전에 큰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Ⅲ 호스피스 교육으로 출가 인연을 지어주신 능행스님을 언양 마하보디교육원에서 만나보았다.

Q. 한국에서 불교호스피스를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

능행스님 : 우선,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이 끝날 수 있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호스피스를 하면서 처음엔 이해할 죽음의 여정과 가족들의 반응에 대해서 몹시도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특히 불자들의 죽음의 여정은 타 종교인들보다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낙후된 상황들이 많았으며, 질병과 죽음에서 오는 갖가지 고통의 원인은 절박한 눈에 비유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승려들의 죽음의 여정 또한 사정은 비슷하였고, 준비 없는 죽음, 오직 삶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도 수용되어지거나 공감되어지는 사례는 참 보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4) 가톨릭을 예로 한다면 호스피스 환자를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담당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봉사자는 물론 침상봉사자 등 관계하는 모든 분들이 주 1·2회 반드시 의견을 나누며, 매일 그날의 봉사자들과 담당 수녀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만날 환자분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계획을 세워 진행합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의 일과가 끝나면 만난 환자와 느낌들에 관한 상담일지를 써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도영스님.



정토 호스피스 임종의식 교육중

1999년 정토마을 독립형 호스피스시설설립(정토사관자재회 이사장)
2007년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 대학 설립(마하보디교육원 원장)
2010년 사단법인 아미타 호스피스협회 설립(아미타호스피스회 회장)
2011년 완화의료 전문자재병원 건립 기공식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총복지부 지장봉사회설립
한국호스피스원화의료학회 이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상임이사

Q. 불교호스피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능행스님 : 호스피스는 돌봄의 공동체로서 정의되기도 하며, 죽음에 대해 고유한 통찰력을 갖도록 하여 암을 비롯한 치유될 수 없는 각종 질병을 가진 분들의 마지막 생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안전하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불교호스피스는 타력신앙인 정토신앙이 토대가 되고 마라나사띠(죽어감을 알아차림)수행법⁵⁾을 통하여 깨달음을 추구하게 됩니다. 마라나사띠수행법은 자비심 속에서 행복을 창조하며 너와 내가 苦海를 건너 피안에 이를 수 있는 수행법으로, 대승불교 동체대비사상에 근거를 두고 생사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수행입니다.

Q. 사부대중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능행스님 : 막연히 생각으로 인식하는 생노병사,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되는 고통과 현상들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사실적으로 펼쳐지는 생노병사의 현상을 통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고귀한 가르침은 무상과 무아를 깊고 바르게 통찰할 수 있는 수행의 길로 이끌어주는 수레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실천 속에서 우리는 깊은 지성과 지혜 그리고 자비심을 성장시킬 수 있다.” 라는 진리를 저는 죽어가는 그분들을 돌보는 그 삶 속에서 얻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수행해야 하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출가의 길을 가야 하며, 그 길이 무엇 때문에 고귀하고 조사어록을 배우며 경전을 공부해야 하는지 더욱 명징하게 알게 되는 계기를 저는 중생들의 철학 같은 고통에 동행하면서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실까요? 그리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찾아 구법만행을 하듯 이 시대 慈悲行者를 뽑기위해 찾아간 시간들을 통해 자신보다 타인을 위하는 보살 사상은 웰다잉에서 가장 가치있는 삶, 회향의 실천이며, 초기불교에서 대승불교 운동을 일으킨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실천적 수행과 不二론의 중도 사상을 추구한 불교도의 개혁이었음을 되새겨보게 되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기 전의 구도 과정과 깨달음을 얻은 후의 자비 실천을 바탕으로 수행을 삼으셨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자신을 뉘고자 하는 이면 누구에게나 자비롭게 가르침을 설하여 주셨다. 붓다와 같은 웰다잉의 삶을 통해 두려움 없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진정한 불교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신 세 분의 스님께 감사드리며 處處마다 불교 웰다잉 문화가 華莊嚴 되길 발원합니다. ☸

5) 기원정사, 죽림정사, 기수급고독원 등의 사원종심의 병원, 임종의 집(열반당)등 부처님께서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았던 흔적인 사원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기원정사 붓다의 처소 가까운 곳에(질병소) 병원을 두었고, 405년에서 12세기까지 인도 나란다 대학에서도 의술을 가르쳤다고 한다.

處處佛像 事事佛供



곳곳이 부처님이요,
하는 일마다 모두 불공이로다.

우리 부처님이
쉽없이 닦으셨던
어렵고 힘든 행원을
나는 기꺼이 좇으리라.



몸은 부서져 티끌이 되니
목숨을 버릴 사이에도
그같이 힘을 배우리.
『보현심원가』中(常隨佛學歌)



연(蓮)과 물망초

법 진 / 대교과



스님들의 출가동기를 묻는 것은 너무 고루해요. 출가동기가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생노병사의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안고 살다가 불교를 만나 출가를 했거나, 세상을 벗어나고자 했거나 하는 스님들이 많지만, 저는 어릴 적 문학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 춘원 이광수씨가 산사에서 생활하며 쓴 글을 읽다가 산사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선 우연히 마주친 조용하고 정갈한 산사와 그곳의 불상의 모습을 본 후로 막연히 절에 가고 싶어했고, 동네에 탁발 나온 몸이 불편한 어느 스님과의 편안한 대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점진적으로 인연이 되어 어느 날 보파리 싸서 진관사로 출가를 했어요.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하자면 인연이 아니겠어요? 출가할 당시 진관사엔 법당이 없었는데 그 불사한다고 행자시절 고생이 많았어요. 낮으로는 법당터를 곡괭이로 파고, 돌 나르고, 터 고르고, 새벽엔 나무하고, 많은 스님들이 모두 그렇듯이 나도 힘든 행자생활을 했죠. 좀 실망도 했었고요, 아마도 조용한 산사에선 정말 거룩하게 앉아 글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도로 집에 가려고도 했지만, 갈 곳이 없더라고요. 집에선 말도 없이 나와 버렸으니 다시 돌아가기엔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스님께서 출가하신 후에 신춘문예에 당선되셨는데 시는 언제부터 쓰셨고, 또 글을 쓰실 시간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집필 생활을 하셨는지요?

진관사에서 정말 많은 진통을 앓았지요.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일은 너무 힘들고 책도 못 보게 하고, 글도 못 쓰고 하다가 내가 극단적인 생각

을 했었어요. 그런 고통들을 감당하면서 점점 불교라고 하는 종교와 만나기 시작했지요.

이광수씨의 책 가운데에 이 작가에게 어떤 사람이 문학을 하고 싶다고 찾아가요. 이광수가 불교경전을 읽어보았느냐? 그 청년이 불교경전을 본 적이 없다고 하니 이광수가 불교경전도 안 보고 어떻게 문학을 한다고 그래? 하는 말이 나와요. 그 글을 읽고 나서 '아 글을 쓰려면 불교경전을 꼭 공부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문학은 접어두고 피상적으로 혼자 떠올리는 불교가 아닌 진짜 불교의 사상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 출가 후 문예등단까지 좀 시간적 공백이 생긴거죠.

이광수씨가 왜 불교경전을 언급했는지를 그때 이해했어요. 불교경전은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함경> 같은 경우 현실적 삶에 교훈이 되는 가르침으로 출발해서 <방동부>, <반야부> 등은 철학적으로 교류가 형성되면서 사상을 이야기하고, 또 경전에는 소설적인 이야기와 시나리오 같은 그런 문학성을 가진 글들이 많아요. 문학을 하고 싶다면 불교경전을 보라. 정말 타당성이 있는 말이었죠.

행자, 사미시절이 지나 여유가 좀 생기게 되니 혼자 몰래 책도 사다보고 하면서 습작을 하기 시작했죠. 대중처소에서 제일 호젓한 산신각에 가서 책도 보고 글도 쓰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너무 무리를 해서 글쓰기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도량석이 올라가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연히 몸이 축나서 건강이 안 좋아지고 급기야 황달까지 오고,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내가 이거 안 쓴다고 못살겠다 싶어서 모두 불사르고 결망하나 젊어지고 그야말로 만행을 나섰죠. 한 곳에서 함께 지내던 스님은 시를 쓰고 나는 계속 소설을 썼는데, 이듬해 동아일보 신년 신문을 보는데 그 스님이 신문에 난거예요. 시조가 당선되어서 작품도 나오고 당선 소감도 나오고, 그걸 보니 눈에 불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를 썼어요. 여러 번 도전해서 5년 만에 당선됐는데, 그리고 나니 내 길이 정해진 것처럼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해지더라고요.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나서, 시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반려자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법정스님의 추모시도 쓰셨는데 법정스님과의 인연과 법정스님께서 스님의 집필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 제대하고 80년대 중반부터 해서 민주화 환

동이 일어나면서 사회의식에 눈뜰 시기에 나는 세상일엔 눈 돌리지 않고 살았어요. 나는 스님이었으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사회 정화를 한답시고 제일 먼저 정화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우리 종단이었어요. 우리 종단을 자기 권력기반의 한 먹이로 삼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중견 스님들이 아주 안 좋은 죄목으로 잡혀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가 많은 집단인 것처럼 우리 종단을 탄압하던 시절이었는데, 당시 청정 승가들이 분노를 느끼고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는 시기에 법정스님이 쓰신 글들을 접하게 됐죠. 그분의 글을 보면서, 법정스님은 지식인의 양심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을 많이 가진 것만이 아니고 지식을 가졌으면 그 지식에 의한 높은 식견을 가져야 하고 높은 식견을 가졌으면 그 시대를 조감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악이라던가 횡포를 부리는 세력, 부당한 권력 등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지식인이 가져야 할 자세, 사명인 것인데, 법정스님은 그런 지식인의 양심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내가 느낀 법정스님은 수행자의 양심과 수행자의 정신이 특출하고, 그러니까 내외가 탄탄하게 무장된 분이셨어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좀 괴팍한 스님이시기도 하셨지만,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한 스님, 수행자로서 일말의 흠결도 없는 분이였죠. 수행자로서의 자기 관리에 있어 가까이해야 할 것과 멀리해야 할 것, 이것을 양심적으로 항상 살피시는 그런 분이 바로 법정스님이셨어요. 스님으로서 그렇게 흠결 없이 사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항상 존경을 했고, 입적하시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추모시를 썼어요.

스님께서는 종무의원, 교육원장 등 소임을 많이 사셨는데 어려웠던 일들과 아쉬웠던 일, 보람되었던 일들이 있었는지요?

나는 좀 유별나게 수행자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80년대 군부독재라고 하는 거대한 산을 만나면서 그에 대한 저항감 같은 것으로 민주화운동에 동참하고, 그런 가운데 90년대에 와서 종단에 관심을 두었죠. 사회적 이슈가 사라진 90년대에 우리 종단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



작했죠. 그때 우리 종단은 식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고, 매도당하고 있었거든요. 종단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종단개혁의 토대를 찾게 되었죠. 종회는 입법기관이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인데 총무원장과 본사주지들이 종회의원이니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없어서 종단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범종단개혁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했는데, 그건 순전히 실천승가회가 주인이 되어서 한 일이에요. 조계사에서 단식 투쟁도 하고 지루한 싸움이었지만 개헌에 성공했고, 새로운 종헌 중범을 개헌하고 개정하고 그렇게 정비가 되어갈 즈음 고민을 많이 했죠.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떠나느냐 아니면 개헌한 법들이 종단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정착시키는 책임을 다해야 하느냐?

결론은 책임을 다해야겠다 싶어서 제도권에 남았어요. 교육원장 역시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종단에서 희망을 볼 수 없는데, 내가 그 직책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교육적인 체제에 대해서 개혁해 나아갈 것인가 등등 이런 이상들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없는 상태이고 해서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때 범종단개혁이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선교 후 득도의 제도로 바꾸기를 원력을 삼으셨는데, 꼭 스님이 해달라고 해서 소임을 맡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육체제를 실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따르는데, 그게 잘 안됐죠. 제도권에 있으면서 아쉬운 것이 너무 많았어요. 많은 직책들을 맡았었지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이름뿐이었지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았죠…….

스님께서 바라보시는 지금의 승가교육과 승가교육체제가 이대로 바람직한 것인지, 재고해야 할 점은 없는지요.

교육적인 것은 말하자면 한이 없지만, 예전의 교육방법은 이 시대상황이 원하는 것을 담고 있지 않아요. 시대와 융합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종단교육의 성과라든가 체제는 아직 그 영향이라던가 효과가 미미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지금의 교육도 엄청나게 좋아졌죠. 하지만 더 미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정도로는 안됩니다. 불교라는 것이 한국 사회를 안고 있는 거대한 품인데 지금은 너무 밀려 변두리에 가 있어요. 이걸 교육의 부재 탓도 있지요. 교육을 통해 스님다운 정신력, 안목, 지견, 그리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식견, 그리고 스님으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 이런 것들을 교육해 나가야 합니다. 황금빛을 가진 불교사상이 양은그릇의 빛조차도 못 내고 있으니 이것은 스님들의 책임이에요. 황금빛 자체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야만 합니다.

교학과 선 수행에 대한 스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불교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핵심을 말한다면 그건 교와 선이죠.

교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보완한 것이 선이고, 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교예요. 선과 교가 하나가 되었을 때 불교는 완성된 모습을 가지죠. 그런데 스님들의 선과 교에 대한 이해들이 종종 잘못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무 단견에 빠져 있어요.

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수행의 전부가 선이라고 하고 교학을 하는 사람은 교가 최고다 하는데, 선 수행과 교학은 대립구조에 있어서는 안 되고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옳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바로 말이에요. 말로써 사람을 울리기도 웃기기도 하죠. 말로써 부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실감하게 하려면 교학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겠죠. 반면 논리적인 체계만으로

불교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불교사상이 너무 현학적으로 치우쳐 있을 때는 선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학문적인 것으로 더이상 불교의 사상 등을 설파할 수 없을 때 선이 필요하듯 말로써 교화하여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가 최선이겠죠. 이렇듯 선과 교는 항상 상호보완 되어야 합니다.

말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을 표현하는 것이 글인데 스님의 집필 활동이 수행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의미가 있지요. 대부분 글 쓰는 사람은 말할 시간보다 글 쓰는 시간이 많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절도 조용하고 글 쓸 시간이 많은 편이에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조계사 법회에서 법문하는데, 그 외엔 시간이 있으니 책 보고 글 쓰고 하는데 여유롭죠.

어떤 글을 쓸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신변잡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글은 자기 삶 속에서 사유에 의해 깨달은 것들을 여과시켜 진솔하게 글로 옮겨야만이 글을 읽는 사람이 함께 공감하고 스스로 느끼며 깨어날 수 있는 정신적인 교감이 되고, 그래야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내면을 비추는 사유를 통한 집필은 저에게 수행이지요.

끝으로 학인 스님들에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배워 나가야 할지에 대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연꽃과 물망초를 말할 수 있어요. 물망초는 물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식물이지요. 물이 있을 때는 무성하게 자라지만 물이 없으면 말라죽는 단점이 있어요.

그에 반해 연꽃은 물망초와 다르게 그 뿌리를 흙에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도 연(蓮)은 죽지 않아요. 이렇게 볼 때 연이라고 하는 식물은 자기 무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연으로 존재하는데 있어 흙에 깊이 뿌리를 내려 물이 있다 없다 때문에 생사가 결정되지 않아요. 그에 비해 물망초는 물이 있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물만 빠지면 죽어버리죠. 그와 같이 스님들도 수행자로서 자기 무장이 부실하게 되면 물망초와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수행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본질적으로 철저하게 고민하고 그 고민을 통해 요청되는 부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충분히 다 갖

춰야 합니다. 연과 같이 객관적인 충분한 조건이 없다고 해도 스님들은 스님다운 자세를 잃지 않고 스님다운 정신을 이탈하지 않고 스님다운 인격적 향기와 모습들을 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수행자의 삶이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출가한 삶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환경에 고달리지 않는 것처럼 자기 무장을 철저히 하고, 물망초 같은 수행자가 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요즘 스님들은 글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있는데, 스님일수록 특기 하나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행자의 고독한 길을 갈 때에 충분히 힘을 줄 수 있는 반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저에게 수행이라는 고독함과 외로움이 있을 때 그것은 시련이 아닌 글을 쓸 수 있는 소재가 됩니다. 너무 유별나게 수행자라는 상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스님들은 자기감정이나 기분을 감당 못해 술을 마시기도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예요. 그러니 스님들이 한 가지쯤은 자신이 풀듯 해 좋지 않은 감정들을 좋게 풀어낼 수 있는 특기가 하나쯤 있다면, 그것이 자기 무장에 또 한 가지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물망초가 아닌 연(蓮)이 되세요.

스님의 연과 같은 수행자가 되라는 말씀과 수행자로서 한 가지 정도의 특기나 개성을 가져 흐트러짐 없이 수행해 나가라는 당부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진다.

맑고 자비한 미소를 가진 청화스님께 누가 되는 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설현당에서 스님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



선정(禪定)

편집부

고요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남의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고
 남의 얘기를 함부로 듣지 않는다
 고요히 자신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깨달음에 귀 기울인다
 험뻑이는 숨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물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다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삶이란 한숨 한숨 고르게 내뿜는 것
 고요히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허허당스님의 「비고 빈 집」 중에서-



허허당스님 내리던 날



승이 / 대교과

상처 위에 연꽃 피우기

- 인도성지순례를 다녀와서 -

덕 안 / 대교과



부처님의 나라, 인도.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기를 꿈꾸는 성스러운 땅이다. 석발암의 한 출가 사문이라면 더욱더 그리워할 마음의 고향. 그러나 막상 도착해 보면 순례자의 마음은 당황스러운 사실들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는 나라이다. 불교의 탄생지인 인도에서 불교는 사라졌다. 붓다 입멸 후 1500년이라는 세월을 원시 불교에서 부파불교, 또 대승불교로 형태를 발전시키며 거듭났지만, 왕가와 대 부호의 비호를 받는 부유한 승원 중심의 귀족적 불교는 일반 대중들과의 소통을 결여한 채 사회성을 잃어버렸다.

게다가 8C경, 힌두교와의 습합으로 밀교화 되면서 불교의 성격이 점점 약해져 정체성마저 상실한 내부적 요인까지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13C경 이슬람 세력의 침입은 불교 멸망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 불교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폐허와 허허벌판으로 변해 버린 불교 유적지에서, 또 힌두교의 한 신(神)쯤으로 부처님을 기억하는 인도인들에게서 받는 가슴 시린 당혹스러움....., 우린 그 상처 위에서 다시 부처님의 모습을 찾고자 인도로 떠났다.

Day 1~3. 운문사에서 슈라바스티로

어느덧 서늘해진 가을 새벽, 여러 대중 스님들의 따뜻한 환송을 받으며 출발한 우리들은 무사히 델리에 도착해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렉나우로 이동했다. 이번 순례의 출발지인 슈라바스티로 가기 위해서다. 슈라바스티는 부처님 당시 사위국의 고대 도시로 기타태자와 급고독 장자가 부처님께 헌사한 기원정사가 있는 금강경의 설법지이며 당신의 신룡을 보이신 천불화현탑이 있는 곳이다. 한때는 상업과 해외무역으로 가장 번성했던 도시 중의 하나였지만 오늘날의 모습은 전형적인 인도의 가난한 시골 마을이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과 우기에 입은 폭우 피해로 아직도 물에 잠긴 마을 사람들의 고된 생활상은 너무도 대조적이다. 먼지와 함께 그리고 가축과 함께 텅골고 있는 벌거벗은 아이들, 그 순하디순한 눈빛만은 저 광활한 대지를 닮았다.

기원정사 부근에 자리한 한국 사찰 천축선원에 짐을 풀었다. 10년 전, 처음 인도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성지마다 조성되어 있는 세계 각국의 사찰들 속에 한국 절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많았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곳보다도 운영이 잘 되고 있어 여행객들에게나 현지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찰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봉사를 꾸준히 베풀 수 있도록 아예 절 입구에 작은 보건소를 마련해 둔 점이 기쁘고 감사할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새벽예불을 마치고 기원정사로 향했다. 우리 40명의 손마다 가득 담긴 연꽃을 바라보며 기원정사의 부지를 사기 위해 바닥에 황금을 깔았을 수닷타장자의 정성을 생각해 본다. 이른 아침 햇살 속에 장중하게 서 있는 기원정사는 갖가지 꽃나무들과 히말라야 설산이 눈앞에 펼쳐진 고요하고도 아름다운 사원이다. 입구에서부터 일자로 쭉 뻗은 가운데 큰길줄을 중심으로 양옆에는 온갖 방사와 승원, 탑들이 늘어서 있다. 대부분의 건물이 7층 이상인 전단나무 누각의 형태였다 하니, 그 위용과 화려함은 당시의 불교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었는지 상상케 한다. 지금은 모두 소실되고 벽돌로 된 기단부만이 허허롭게 남아 있지만, 그 방대한 규모는 2500년 후의 이방인으로 하여금 주눅 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금강경의 설법지에서 붓다의 딸들이 함께 입을 모아 금강경을 독송하는 감회는 마치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 듯하다. 폐허뿐인 곳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각자 나름의 기도를 하는 스님들의 모습 속에서 수행정진 하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모양이나 소리로 부처를 구하지 말라던 금강경 사구계를 조금은 알 것 같다. 붓다의 법을 따르고 실천하는 우리의 가슴은 이미 그 자체로 붓다다.

강렬한 한낮의 태양을 피해 오후 3시쯤이 '풀가람'이라는 옛 비구니승원에 다녀왔다. 부처님께서 자주 설법을 하셨던 기념으로 아쇼카대왕이 석주를 세웠는데, 그 석주가 힌두교 남근의 상징인 거대한 링가로 탈바꿈해 있었다. 상상해 보시라, 38m 정도의 거대한 남근상을....., 정말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현재 인도 불교 유적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다. 영향력 있는 불교 단체가



▲ 기원정사

턱없이 부족한 현실과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도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타 종교가 조금씩 잠식해 오고 있는 것이다. 바이샬리의 죽림정사 터는 이슬람교 사제의 무덤으로 바뀌어 있었고 불교 성지의 대부분이 자이나교의 성지와 맞물려 있어 자이나교도들은 우리의 성지를 자신들의 성지라고 주장한다. 작은 시골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불교 유적지에는 어김없이 힌두사원이 세워져 있다. 종교의 자유를 중시하고 분쟁을 피하려는 인도 헌법으로는 현재의 활동이 더 중시되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제제도 가할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사르나트 녹야원의 총 높이 60m인 거대한 대탑이 개인 사택을 짓기 위해서 한 지방의원에 의해 다 뜯겨 나가고 기단부만 남아 있다. 그 몰상식함에 무너져 버린 불탑 앞에서 망연자실할 뿐이다. 스리랑카 다르마팔라 주도로 만들어진 대각회의 주된 활동도 바로 불교의 부흥과 문화재 보호이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점에서 역부족인 것 같았고 세계 불자들의 애정 어린 관심이 촉구된다.

성지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사색하고 그곳을 느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해가 지평선 너머로 기울자 우리가 켜 수천 개의 촛불이 기원정사를 가득 밝혔다. 환히 밝혀진 길을 따라 큰 소리로 울려 퍼지던 석가모니불 정근. 이어 예불을 마치고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바람 소리만이 간간히 귀를 간질이는 그 고요함 속에 여기저기서 스리랑카, 태국의 언어로 부처님께 바치는 순례단들의 음성은 불교가 무한한 평화의 종교임을, 이 무너져 버린 터 위에서 세계인에 의해 다시 펼쳐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



▲ 마하보디

다. 눈을 떠 보니 다른 순례단이 밝혀놓은 수만 개의 불빛은 그곳에 있던 모두의 기도와 염원과 함께 화합하며 어우러져 붓다가 사랑하신 정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불교는 그렇게 살아 있었다.

Day 4~5. 탄생지와 열반지

인도의 인사말이 '나마스테' 인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끈질기게 따라오며 인사를 건네는 아이들의 입에서는 다른 인사가 흘러나온다. "루피 내놔, 머니? 텐 루피 마담." 너무나 가난한 이들에게는 여행자에게서 구걸 받는 10루피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소득이다. 어디를 가나 마주치는 가난과 살기 위한 아우성. 호화로운 궁을 빠져나와 수행의 길을 걷고 있던 젊은 태자에게는 마주치는 모든 삶이 고통 그 자체였을 것이다. 왜 부처님의 첫 가르침인 사성제가 고(苦)로 부터 시작하는지, 왜 세상은 온통 고통으로 존재한다고 하셨는지 그곳에 가면 알 수 있다. 노구의 붓다가 무한한 자비로 가난한 이들을 만나며 걸어가셨을 그 길의 끝에 열반당이 있었다. 당신이 누우셨던 두 그루의 사라쌍수는 아직도 열반당 앞을 지키고 있었

고 우리는 숙연해진 마음으로 오른쪽으로 누워계신 부처님을 뵈었다. 그 거룩한 삶이 왜 그리 일찍 끝나 버렸는지, 안타까울일까. 당신이 떠나신 후에야 만나 뵈을 수 있는 박복함이 역올해서일까. 당신을 향해 예경 올리는 우리 모두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목소리에는 울음을 삼키는 비장함이 열반당을 떠나가도록 메아리치고 있었다.

Day 6~7. 바이살리에서 라지기로

마가다국의 수도였던 왕사성은 범화경의 설법지인 영축산과 제1차 결집이 이루어진 칠엽굴로 유명하다. 지금껏 달려왔던 모든 지역이 끝없는 평원이었던 것과는 달리 천연 요새와도 같은 산과 계곡, 강물, 평원이 두루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 독수리를 쫓 빼닮은 영축산 바위 밑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우리의 기도는 어김없이 시작되었고, 생각보다 등반이 길었던 칠엽굴까지 전원 모두가 가기 위해 병고자를 위한 특별 지게까지 대동한 눈물겨운 여정이었다. 오후에는 석양이 비끼는 나란다 대학에 도착했다. 세계 첫 국제대학이었던 나란다. 25km에 달하는 유적지가 1/4만 발굴된 것이라고 하니 그 명성만큼이나 웅장하고 방대했다. 당나라 현장이 방문한 당시의 나란다는 모두 고층 건물의 가지가지 보석들과 조각으로 장식된 화려한 승원이었고, 세계 각 처에서 모여드는 승려들에게 모든 것이 무상지급되었으며,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수학, 의학, 천문학에 이르는 다양한 학문이 연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명의 신라 고승들의 이름도 이곳에서 발견되었다. 당시 나란다 안에서 입적하신 스님들의 크고 작은 부도탑과 우연히 마주치자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현대, 해엄, 현각 등 신라 스님들의 방향의 빛이 함께 묻혀 있는 듯하여 마음이 한동안 애잔하였다. 이슬람 세력에 의해 이곳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지금 세계의 학문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Day 8~10. 깨달음의 성지, 보드가야



▲ 영취산

부처님이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신 곳, 보드가야. 이슬람의 파괴를 면하기 위해 나란자강의 모래를 끌어다가 아쇼카왕이 세운 마하보디 대탑을 덮어 둔 보람이 있었다. 다른 불교성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보존된 아름다운 대탑이 그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새벽부터 시작되는 세계 각국 수행자들의 정진 열기는 밤이 늦도록 식을 줄 모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곳이라서일까, 아니면 사람들의 구도 열정 때문일까. 보드가야의 기운은 어느 곳보다도 단정하고 맑고 청량했다. 운문사에서 새벽예불 가기 싫어하던 스님도 어느새 새벽 4시면 혼자서 대탑에 나와 기도를 하고, 108배를 싫어하던 스님도 누가 시키지 않은 절을 좌복도 없는 맨땅에다 끝도 없이 하고 있다. 독송을 할라치면 꾸벅꾸벅 졸던 스님도 어느새 대탑에 나와 목이 터져라 금강경을 읽는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변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다시금 신심으로 뛰게 하는가. 부처를 닮고자 하는 또 다른 부처들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부처님께서 성도 하신 후에 들어가 수행하셨던 등게스와리, 시다림에는 한국 정토회(JTS)에서 수자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등게스와리는 보드가야에서 나란자강 저편으로 보이는 산 이름으로 '부정한 곳'이라는 뜻을 가진, 예전에는 시체를 내다 버린 곳으로, 지금은 불가촉 천민의 거주지로 남아 있다.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돌을 깨고 받는 1달러 정도의 임금으로 살아가는 마을에 1997년경 법륜스님이 방문하셨다. 당신에게 구걸하기 위해 물려든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보고, 스님께서 뭘



▲ 열반당

도와줄지를 묻자 지역 주민들이 학교 세우기를 위해 시작된 것이 수자타 아카데미이다. 단순히 돈만 지원해 주는 원조가 아닌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문맹·결핵·영양실조 퇴치와 피임교육·우물파기·직업교육까지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모든 지원이 장기적으로 아낌없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결과 등게스와리는 부정한 곳이 아닌 희망을 품고 사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바른 지혜를 바탕으로 한 자비의 실천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절실한지를 느끼게 해 주는 순간이었다.

Day 11~14. 그리고 나머지 여정.....

불교가 멸망한 상처 위에 다시금 불교를 꽃 피우고자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때로는 감동의 눈물로 때로는 감사의 기도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바라나시의 화장터에서 삶의 무상함을 새로이 느끼고 바퀴벌레 무쌍한 야간열차에서 신선한 짜이로 살아 있음의 축배를 든다. 이제는 아무리 끈질기게 달려드는 거지에게도 무심할 수 있고, 곳곳에 널려 있는 지뢰를 폴짝폴짝 잘도 피해 다닌다. 곳곳에서 상처를 드러낸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설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바깥을 씌우는 상인들이 짐착을 내려놓을 것을 설한다. 갠지스 강가의 가짜 힌두 사제들은 마리화나를 피워가며 니르바나를 얘기하고, 달겨드는 파리 떼를 쫓는 기운 없는 아이의 눈에는 무엇에도 물들지 않은 길이 나 있다. 온 국토가 온몸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설하는 이곳, 인도. 인도에는 불교가 살아 있다. ॥

여성의 힘을 모아 새로운 도약으로

조은수

저는 한국불교의 미래가 여성에게 달려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요즘 역차별이라는 말도 사회에서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성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선언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여성의 능력이 발휘될 기회가 너무 적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꺼내는 것입니다. 여성이 조직화되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 훈련을 받고, 여성 인재들을 적극 발굴 활용하면 한국 불교에 대단히 힘을 낼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현재 여성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은 우리는 그동안 패배의식에 빠져서 준비를 안 해 왔다는 것이 더 옳은 말일 겁니다.

제가 아는 미국인 학자이자 불자인 엘리슨 굿윈이 최근 자신이 쓴 논문에서 미국에서 실행된 한 심리 실험의 결과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인종차별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가르치기 위해 자신의 3학년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롤 플레이를 시켰습니다. 하루는 아이들에게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은 갈색 눈 가진 사람보다 더 교양있고 깔끔하고 더 똑똑하다고 하고, 한편 갈색 눈 가진 사람은 머리가 나쁘고 이기적이고 화를 잘 낸다고 말을 하고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서 그와 연관되는 일을 계속 지적합니다. 너희 아빠는 매일 술만 먹고 그러지? 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뛰어나가 노는 대신, 그늘 밑으로 숨고 다른 사람을 피하고 구석에서 비실거립니다. 그리고 마치 그러한 선입견이 맞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친구에게 욕설을 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정말 나쁜 아이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음날 선생님이 수업에 다시 들어가서 말합니다. 어제 내가 잘못 알고 너희에게 잘못 말했어. 사실은 반대로 갈색 눈 아이가 더 똑똑하대. 그러면 아이들이 신기하게도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물론 그 다음 날 선생님이 다시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해 줍니다. 둘 다 사실이 아니라고. 그리고 아이들과 토론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다른 아이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 마음을 열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결론을 냅니다. 서로가 다르다고,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갈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비하감이 인격성장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명한 실험입니다. 이 결과는 미국 공영TV방송 PBS에 특집으로 방영되어, 지금도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pbs.org/wgbh/pages/frontline/shows/divided/etc/view.html>) 미국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도 많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비디오를 보시면, 그때의 그 선생님과 성년이 된 아이들이 나와서 그 사흘 동안에 겪었던 경험이 평생을 통해 자기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입견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고, 또한 선입견이 얼마나 자기비하감에 빠뜨리게 하는지에 대해서요.

엘리슨은 이 논문에서, 실험 결과가 보여주듯이 여성이 자신의 종교적 성취의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실행의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팔경법이 여성 출가자들에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겠느냐고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려 시대의 어떤 스님이 재가 여성들에게 준 편지 글에서, 너희들의 업장이 두터워 여자로 태어났으니 이생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고 내생에서 성불을 피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보다는, 여성에게 불성이 있고 지금 자신에게 엄청난 가능성, 잠재력이 있으니 이것을 발휘하여 보다 나은 세상과 불교계를 만드는데 힘쓰라고 하셨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여성이란 불완전한 것이고 뭔가 결여된 것이라고, 이것을 숙명으로 여기게 하여 차별적인 시각을 강화하는 것은 불교의 평등사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기비하감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현대 종교는 그 실천 주체의 영적, 종교적 잠재력을 키워주고 완성하여 능력을 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만이, 일상에서 또한 종교 실행 생활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그 출발에서부터 양성 평등적인 종교로 시작되었고 여성 수행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한국 불교계도 양성 평등을 실현하여 현대 사회의 이념과 방향에 걸맞는 미래 사회의 종교가 될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과 관련하여 저 자신도 비슷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 며칠간 수련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사흘째에 접어들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평소 유난히 잡념이 많은 저는 이번에도 도대체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저 자신에 대해 문득 슬프고 답답한 생각이 들어 비탄에 잠겨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법상에 올라오신 스님께서 말씀을 여시면서, "여러분 중에 지금 나는 왜 망

상밖에 들지 않을까 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하십시오. 그것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다시 화두가 들릴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격려와 믿음의 말씀을 듣고 보니 감사한 마음이 치밀어 오르면서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앉았습니다. 결국, 화두가 저절로 떠오르는 것을 약간 경험하게 되었고, 부끄러운 정도이지만 저 나름대로 얻은 것이 있는 수련대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격려와 긍정적 생각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지난 6월 학장스님을 비롯해서 운문사에서 많은 스님들께서 방콕의 사카디타에 오셔서 열심히 참가하셨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이 각자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는지 의견을 교환하고 학문과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여성이 여성에 대해 믿어주고 서로 장려하고 격려해 주고 자기 성숙을 도모하게 도와주는 것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나를 넘어 자신이 모르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출가·재가 여성들이 힘을 모아 같이 협력한다면, 새로운 불교 르네상스를 우리가 일으키는 것도 정녕 가능하지 않을까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

필자 소개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불교철학 전공, 역서로 『출가 10년, 나를 낳는다』(웅진출판, 2011), 편저로 Korean Buddhist Nuns and Laywomen : Hidden Histories, Enduring Vitality (미국 SUNY Press, 2011) 등이 있고, 논문으로 「지옥스님의 생애운동과 예코페미니즘」, 「자아 중심적 세계에서 연기와 공의 불교의 세계로」, 「梵網經 이본을 통한 고려대장경과 돈황유서 비교 연구」, 「원효에 있어서 진리의 존재론적 지위」외 다수. 현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소장,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불교여성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사람다움에 대하여

현 서 / 대교과

“성불(成佛)하세요!”

부처를 이루라는 끝인사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부처, 막연한 의미, 정의 속에 ‘그저 좋은 말이라니, 부처는 좋은 거니까, 심오한 깨달음을 얻고 수많은 이들의 존경과 축복을 받는 인물이 되라는 뜻이니까’ 좋게만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불교가 지향하는 것, 깨달음이란 무엇이고 부처님이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왜 사람들이 부처를 향해 열광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녹아 있다.

만약 나무가 날아다니고, 새가 걸어 다니며, 산이 노래를 하며, 책상이 말을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수해 오던 모든 생각들에 혼란이 올 것이다. 그럼 왜 우리는 혼란을 느끼는가? 그것은 나무의 우뚝 선 모습, 새가 날고, 산이 항상 거기 있고, 책상의 조용한 본연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이고 이것이 왜 부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설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사람다움’이 되는 길임을 보여 주신다. 자신을 향해 욕을 하는 이에게는 용서와, 자기보다 낮은 이들의 방문에는 그들을 대하는 평등함이,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행복임을 알려주셨다. 사람다움에 대해 한평생을 노력하셨던 그 분의 모습은 화려한 속세의 삶을 버리고 불교에 귀의한 우리 스님들이 스님으로 살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질투, 미움, 성냄,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돈이 전부라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심각한 가치관의 혼돈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다른 이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며, 화를 내기 전에 상대를 향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다움이,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병과 생각의 혼란, 삶의 건조함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한 노력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성불의 의미이다.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진정 본성을 깨닫기를 바라며, 작은 바람으로 인사를 해 본다.

“꼭, 성불(成佛)하세요!” ☸

인어공주

물거품이 된 후에야
갈 수 있는 거야
이 길은.

사무치는 외로움
못다 한 생애 대한 동경
미지의 세계를 향한 두려움에

걸음걸음 가시 밟듯
아플지도 몰라.

그래도 너는 건졌다 했지
가득 고인 눈물은 흘리지 않은 채

내가 가진 가장 멋진 잔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걸
담아주었다.

그렇게 너는
삭발염의를 하고
구름이 유난히 하얗던 날
결망을 들었다.

오늘 물에 비친
구름의
그림자마저 하얀데

“안녕”
이라고 해도 좋다
너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고 싶다

- 쉬는 날 오후, 운문사 학인 -

*이 글은 운문편집실 앞에 마련해 둔 기고함에 어느 학인스님이 기고한 글입니다.

雲門의 가을

글, 그림 / 사교과 명현

타오르던 한여름의 태양빛은
붉은 단풍을 지어내고
호거산 봉우리에 걸친 가을하늘 높아라.
雲門의 기운이 고운 빛으로 물들어 가니
두둥실 두리둥실
우리도 함께 곱게 물들어 가네.



태평가

성현 / 사미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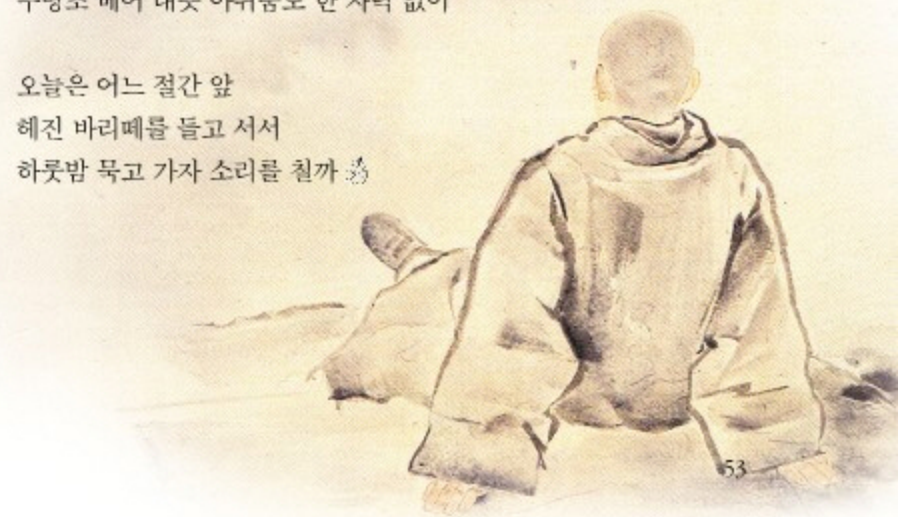
누구는 생사고해 벗어나는
위대한 서원이 있었다하지
에헤야! 나는 그저
산천초목 흠을 밟고 마냥 좋아서리

누구는 지옥중생 제도의
한정 없는 자비가 있었다하지
에헤야! 나는 그저
바람이 잡고 노는 풍경 소리
한나절 낮잠에 좋아서리

누구는 부모형제 생이별의
칼날 품은 가슴 저림으로 수행한다하지
에헤야! 나는 그저 부처님 마주 앉아
작설차 한 잔이 좋아서리

부처는 언제 될까
해탈은 언제 할까
세상 걱정 산문밖에 버려두고
무명초 베어 내듯 아쉬움도 한 자락 없이

오늘은 어느 절간 앞
헤진 바리때를 들고 서서
하룻밤 묵고 가자 소리를 칠까 ㄹ



순수한 밥

도움 / 사집과

부처님
대할 줄 사이다
귀종도 보살의 보살을 세련
그대도 보살의 보살이 되고
부처님 보살의 보살
대할 줄 사이다
부처님 보살의 보살이 되고
대할 줄 사이다

봄과 여름은 조목이 눈을 뜨고 성장을 하며, 가을은 뿌린 대로 거두어
들이고, 겨울은 다음 해를 위해 준비하는 것을 자연에서 배운다. 운문사
에서 보낸 겨울은 무척 추웠지만, 새벽에 정량을 가면서 보았던 밤하늘
의 별들은 별자리가 선명하고 반짝이며 쏟아질 듯해 환희심이 났다. '지
금 여기' 존재하기에 경험할 수 있어서 눈물 나게 행복한 순간이었다.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던 치문시절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바깥 열어서 정신이 없는 치문 첫 철과 남은 봄 방학을 보내고 나니 몸의 상태가 나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이런 메아리가 마음속에서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하게도 쉴 틈도 없이 여름철이 시작되었고, 강원 생활을 하며 또, 이 나이 먹도록 물땀을 줄줄줄 흘려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랬던 여름철은 가고 드디어 치문반이 쉴 수 있는 여름방학이 찾아왔다. ‘아주 폭~ 쉬고 오리라’ 부푼 마음으로 방학을 맞이하고 절로 돌아왔는데 꼭 짜여진 생활 속에서 살다가 방학을 맞이하니 속옷에 고무줄 끈이 끊어진 것처럼 허전하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일까. 그동안 살짝 눌러두었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학도 되고 타국에 살고 있어 소식이 궁금한 오빠에게 메일을 보냈다. 이래저래 안부를 묻고 나서 강원 생활을 하면서 오는 회의감과 불안함과 열등한 존재감에 대해 메일을 보냈는데 다음날 답장이 왔다.

“이상으로 가기 위해 끊임없이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이 거듭되면서 우리는 허물을 벗고 발전과 진보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불가에서 밥을 먹어도 강원에서 먹은 밥이 가장 순수했다고 느껴질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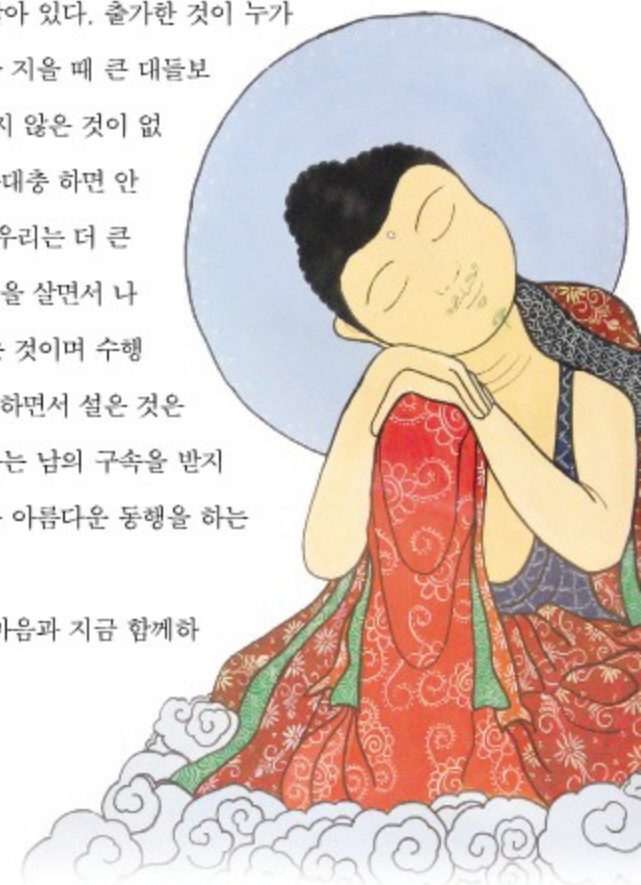
풀리지 않는 깊은 사색의 고민에 빛과 같은 글이었다. 항상 지켜봐 주고, 뒤돌아보면 격려해주는 가족이 있어 나는 행복한 수행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두반이 되면서 밭에 거름을 주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니, 햇볕이 비취주고 바람이 불어주며 하늘에서는 비를 뿌려주고 …… 정작 내가 한 일이 적은데도 채소들은 예쁘게만 자라주고 있다. 도반 스님들과 함께 울력을 하여 거두어들인 채소가 후원의 별좌스님들의 손을 거쳐 우리의 입에 들어오기까지, 그 공덕을 생각하면 나의 이기심과 나태함으로 맛있는 음식만 먹는다든지, 잠의 유혹에 빠져 공양을 거른다든지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내 앞에 있는 공양은 ‘지금’이지만, 만들어지기까지는 몇 달 전의 그때에서 지금에 온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나의 회의감이나 불만도 ‘내가 만든 것이다.’라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메일을 받은 이후 '순수한 밥'이라는 글이 화두처럼 남아 있다. 출가한 것이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전각을 지을 때 큰 대들보에서 작은 못 하나까지 전체를 이루는 구성원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자신이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 책임감 없이 대충대충 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자신의 자리에서 본인의 몫을 다하고 살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강원 4년 동안, 크고 작은 소임을 살면서 나와 다른 이를 이해하고 서물렸던 나의 살림살이를 다져가는 것이며 수행자로 익어가기 위해 많이 부딪치고 아파하며 도전하고 치유하면서 설은 것은 익게 하는, 참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수행자는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각각 등 보체로 살아가지만, 강원 생활을 하는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것이다.

부처님 법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과 지금 함께하
는 대중스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다 겁 생을 함께 해 온 우리, 소중한 인연입니다.”



향기로운 삶 - 회향

편집부

지난 여름, 지루하리만치 길고 긴 빗속을 헤치고 걸어 나온 기분이다. 여름 장마와 크고 작은 태풍들, 그리고 국지성 게릴라 폭우까지 7, 8월의 일조량이 5일이 채 되지 않았다니 가히 짐작할 만하겠다. 서울의 중심부와 강남 일대가 순식간에 침수되고 우면산이 아파트를 덮치며 무너지는 등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 앞에 사람들은 뒀을 놓고 말았다. 매년 침수에 유난히 취약했던 가평, 양평, 포천 등의 서울 근교 일대가 잠겼을 때의 일시적이고 썰렁했던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비싼 고급 외제 승용차가 물에 잠겨 떠다니고 자원봉사자들이 강남 피해지역 일대의 도로를 꼭 메울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는가 하면 폭우에 엉망이 된 집을 용역업체에 맡기고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고급 호텔에 투숙하여 공항이 붐비고 서울 시내 호텔들이 만원이 되는 등 조금은 생소한 홍수피해의 이색적인 진풍경을 연출하면서 소위 富村과 소시민들 간의 이질감과 괴리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하는 씁쓸한 여름이기도 했다.

諸行無常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진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잿빛 구름이 걷히고 가을의 청명한 하늘과 햇살이 되돌아왔다. 익을 것 같지 않던 과실과 농작물들이 햇빛샤워를 흠뻑 즐기며 여물어 간다. 집안 곳곳에 피어나던 습습하고 켜켜한 곰팡이들이 바람에 조금씩 조금씩 말라가듯 우리네 서민들의 물먹은 가슴도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

이쯤 되면 여기저기에서 불만에 찬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다.

무엇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 것인가. 누구는 집이 없어 오르는 전세금, 등록금 걱정에 잠 못 이루고 누구는 그 집값을 훨씬 웃도는 가격의 차가 물에 잠겨 집단 소송을 거는 것인가. 당장

명절에 쓸 과일, 채소값이 감당 되지 않아 고향에 돌아가는 것조차 망설이는 이 마당에 아무렇지도 않게 호화 해외여행을 떠나는 명절 여행객들은 무엇인가. 여기에 맞서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표방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얻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불평하지 말고 일하라.

당신은 어느 편에 손을들어 주겠는가?

불교에서는 이러한 빈부의 격차를 因果法으로 설명한다. 당신의 미래가 궁핍하다면 현재를 보라. 현재의 결과는 과거의 行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과거에 인색하여 布施라는 베품의 선행이 부족했거나 남의 물건을 탐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현재에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와 타인을 위해서도 베풀 줄 아는 돈 쓰기를 해야 한다. 지금의 복을 기반으로 미래를 위한 善業의 적금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하겠다. 이렇듯 불교는 모든 문제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해결의 방안까지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친다. 가난한 쪽도 가진 자를 탓하기보다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고, 가진 자 또한 타인과 공생할 수 있는 삶의 방안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길임을 알아차리는 慧眼이 필요하다.

福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이 허구가 아니다. 부처는 타인을 위한 보살의 삶이 자기 이익을 위한 최상의 길임을 그의 삶 전반(全般)을 통하여 실천하고 가르쳤다. 廻轉趣向, 자기가 닦은 공덕을 남에게 돌려 自他가 함께 깨달음을 성취하게 하는 것, 자신과 타인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 바로 廻向의 의미이다. 말기 암으로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중년 남성이 죽기 전에 꼭 한번 착한 일을 하고 싶어 시작한 자원봉사 덕분에 2년이 지난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의학적으로도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구어 낸 사건은 불교의 가르침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한다. 다른 사람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있는 순간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항암제라고. 물질이 풍요로워야만, 시간이 여유로워야만, 육체가 건강해야만 베풀 수 있다는 생각은 '하기 싫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자 변명이다. 자, 이제 당신은 어떠한 삶을 선택 하겠는가. ॥

운·문·소·식



▲송편 빚기



▲종상 스님 특강



▲대장경 간행 국제학술포럼



▲사리암 후불탱화 점안식



▲해국스님 결제 법문

- 8월 31일 가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일 대중 스님들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다녀왔습니다.
- 9월 4일 오백전에서 '오백나한님과 함께하는 100일간의 수행' 기도입제가 있었고, 대웅전에서는 학장 스님의 입제법문이 있었습니다.
- 9월 5일 염불수업과 요가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9월 8일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의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1일 추석맞이 송편 빚기 대중올래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5일 치문반 스님들의 첫 논강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7일 '제40차 운문사 총동문회(회장 18회 우송스님) 및 정기총회'가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8일~20일 화엄반 스님들의 졸업여행을 위한 신증기도가 비로전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3일~10월 6일 교부 스님과 화엄반 스님이 12박 14일간 인도 성지순례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9월 27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려대장경간행 천년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엄'에 어른 스님과 사교반 스님이 다녀왔습니다.
- 10월 5일 重九日祭가 조사전에서 있었습니다. 불국사 명상음악회에 주지 스님과 원효 강사스님, 사교반·사집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10월 14일 가을철 첫 자초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17일~18일 미국인 교육자 12명이 운문사 사찰탐방을 다녀갔습니다.
- 10월 21일 학인 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22일 김성규 교수님의 '초기불교'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27일 조계종 어장 동주 원명 스님께서 사리암 나반존자 후불탱화 점안식을 봉행해 주셨습니다.
- 10월 28일~29일 서울 동국대에서 열린 교수법 연찬회에 강주 스님을 비롯하여 강사 스님들께서 다녀오셨습니다.
- 10월 31일 충주 석종사 금봉 선원장 해국 스님께서 동안거 결제 법문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 11월 9일 가을철 두 번째 자초와 종강을 합니다.

※ 한국의명찰 시리즈 10 『호거산 운문사』가 간행 되었습니다.

도와주신 분

- 황수진 불자님 · 이기태 불자님 · 성문숙 불자님 · 권혁창 불자님 · 수산화 불자님
- 이정숙 불자님 · 정진관 불자님 · 김영렬 불자님 · 이영례 불자님 · 서상도 불자님
- 구신희 불자님 · 박용완 불자님 · 광명사 · 운문유치원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문』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운문편집실)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 372-8834(FAX 겸용)

본 승가대학에서는 2012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운문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 ① 자 격: 1. 2011년 가을 수계자까지(행자교육 41기 이전)
2. 타 승가대학생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 ① 모집인원: 사미니과 00명
- ① 시험과목: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 ①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본인 법명 도장 및 증명사진(장삼·만의 착용) 2매
5.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및 최종학력 증명서
- ① 준 비 물: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복장은 반드시 사미니 의제 착용, 구족계 수지자는 제외)
- ① 모집기간: 2011년 12월 28일(음력 12월 4일)
~ 2012년 1월 12일(음력 12월 19일)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① 도착일시: 2012년 1월 12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 ① 시험일시: 2012년 1월 13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 ① 교 통 편: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오후 7시까지
운문사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운행간격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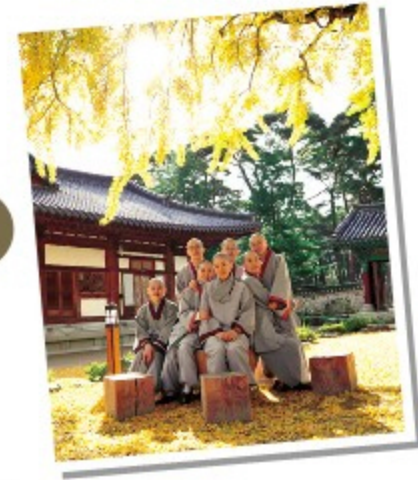
운문승가대학 학장 명성 · 주지 일진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 ① 모집대상: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2년도 불 수계예정자 포함
- ① 모집인원: 00명
- ①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6.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7. 증명사진 2매
- ①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
- ① 준 비 물: 가사, 장삼, 승려증
- ① 전형일시: 2012년 1월 12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운문사 승가대학원장 명성 · 보현율원 율주 흥륜

*승가대학 신입생, 보현율원 및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따뜻하고 조금만 더 친절해질 일이다.
우리 모두는 어디선가 다시 만나게 된다. -법정스님-

雲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 370-7139 / 총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가을호·통권 제118호·2011년 11월 3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진광 / 편집·운문승가대학 문화부 / 편집장·장주 / 편집위원·원각, 덕래, 현우, 영조, 법일, 덕우, 성엄 / 사진·편집부 / 삽화·김호석 화백, 신유
편집디자인·참미디어 (02) 2285-3366